

출제자가 가리는 것을 아는 눈으로 읽는 주장·합의·요지·주제·제목

대의파악, 문제는 아는 데서 갈린다

2019년 6월 이후 학평·모평·수능 기출 324편 · 실제 선택률 수록
개념 51단원 × 미끼 여덟 유형 — 두 축이 지문면에서 만난다

역방향

지엽어휘

통념

부분진술

일반론

비유매개물

사례세부

반대편

고1·고2·고3 | 대의파악 배경지식편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학생을 위한, 유형 훈련 이전의 배경지식서

대의파악, 문제는 아는 데서 갈린다

수능 영어 대의파악 5유형 배경지식서

초판 1쇄 발행	2026년 8월 14일
지은이	정성봉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 전자우편	010-2782-0745 · code_of_english@naver.com
ISBN	979-11-22084-31-3 (5374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펴낸곳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 지문은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이며, 함께 표기한 선택물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법

단원 도입면

단원마다 한 면을 앞세운다. **개념**은 그 단원 지문들이 실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이 단원의 지문**은 각 편이 그 개념의 어느 면을 말하는지 밝힌다. **가려지는 방식**은 그 개념이 문항에서 어떤 미끼로 덮이는지, **이것은 아니다**는 혼동하기 쉬운 인접 개념을 떼어 놓는다.

지문면

한 면에 한 편. 위쪽은 영문 지문과 선택지뿐이고, **여기까지 먼저** 선 아래에 정답과 선택률·직독직해·어휘·미끼가 온다. 먼저 풀고 나서 선을 넘어가라. 미끼 칸은 **오답 넷을 각각 한 줄씩** 다룬다. 굵게 표시된 것이 실제 최다 오답이다. 선택률은 사실이고, 미끼 유형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짜지문

두 편뿐인 묶음은 도입면을 두지 않는다. 두 편으로 개념을 세우면 역지가 된다. 대신 마주 놓고 왜 함께 보는지 한 줄만 엮는다.

상호참조

→ **#17** 같은 표시는 그 단원으로 건너가라는 뜻이다. 임의로 붙이지 않았다. 후보 80쌍을 눈으로 검수해 57개만 남겼고, 링크가 없는 단원 여덟은 **단독**으로 적었다.

이 지문이 낯익다면

같은 시리즈의 『**매듭으로 읽어내는 문장**』이 같은 지문을 먼저 다룬다. 거기서는 **문장이 어디서 막히는가**를 보고 문장을 하나씩 뜯는다 — 문항도 선택지도 실지 않는다. 이 책은 그 지문을 **문제로** 만난다. 문장을 뜯어 본 지문이라도 **출제자가 무엇을 가렸는지**는 여기서 처음 본다. 두 책을 같이 쓴다면 **매듭 → 배경지식** 순서가 맞다.

주제는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대의파악 문항은 주제를 숨기지 않는다. 주제 옆에 그럴듯한 것을 놓아 가린다.

그 그럴듯한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여덟 가지다.

가장 많은 것은 역방향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틀린 답이 참인 경우다.

역방향

232편 · 정답률 72.4% · 고1 36% · 고2 43% · 고3 55%

주제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반대로 돌려놓는다.

- 방향을 뒤집는 방법은 셋이다. 주장을 뒤집거나, 주체를 바꾸거나, 인과의 앞뒤를 바꾼다.
- 주장 뒤집기는 알아보기 쉽다. 어려운 것은 주체와 인과다.
-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의 오답 ④은 「스트레스는 상대의 지나친 요구에서 비롯된다」인데, 지문은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문장은 멀쩡하고 주어만 바뀌었다.

#950 2022학년도 수능 21번 · 정답률 34.0% 영역에 한정되어야 할 과학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

④'비전문가가 대중화한 의심스러운 사실'. 빈칸은 전문가의 정보도 영역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자리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맞바꿨다.

확인 — 주제문에 화살표를 그려라. 무엇이 무엇을 향하는가. 선택지에도 같은 화살표를 그려 방향을 맞춰 본다.

지엽어휘

84편 · 정답률 74.4% · 고1 23% · 고2 18% · 고3 13%

지문에 나온 낱말을 그대로 쓰되 주제가 아닌 갈래로 끌고 간다.

- 본문에서 본 단어가 선택지에 있으면 손이 먼저 간다. 그 반사를 노린다.
- 「나이테」의 오답은 「전통적인 날씨 예측」과 「나이 측정의 어려움」이다. weather도 how old도 지문에 있다. 주제는 나이테가 과거 기후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 고1에서 23%로 가장 흔하고 고3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2 2024년 10월 고1 21번 · 정답률 37.0% 영상 재생이 아닌 재구성으로 작동하는 기억

오답 셋이 images-encode-repeated experiences로 지문 어휘를 재조합했다. 정답만 결론을 말한다.

확인 — 낯익은 단어가 보이면 오히려 의심하라. 그 단어가 주제문 안에 있었는지 확인한다.

통념

44편 · 정답률 70.4% · 고1 10% · 고2 7% · 고3 9%

지문이 반박하려고 데려온 통념을 답인 척 내놓는다.

- 통념반박 구조의 지문은 첫 문장이 통념이다. 그것을 주제로 읽으면 정확히 반대를 고른다.
- 양보절이 특히 위험하다. 「분명 ~은 중요하지만」의 앞부분만 남는다.
- This is true / Of course / 사람들은 ~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오는 것은 아직 주제가 아니다.

#61 2019년 6월 고1 22번 · 정답률 52.0% 남발된 칭찬이 진짜 칭찬을 무력화하는 역설

④「칭찬은 아이의 감성 발달에 필수적」. 첫 문장의 양보절 「분명 칭찬은 중요하다」를 주제로 오인시킨다.

확인 — But-However-하지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라. 그 앞은 버리는 자리다.

부분진술

41편 · 정답률 69.5% · 고1 4% · 고2 8% · 고3 11%

참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전제만, 한쪽 극만, 좁힌 범위만 담는다.

- 이 오답은 틀린 말이 아니다. 지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지우기가 어렵다.
- 판별 기준은 하나다. 그 문장이 주제문을 대신할 수 있는가.
- 고1 4%에서 고3 11%로 늘어난다. 고3 오답이 논리로 가린다는 말이 이 뜻이다.

#110 2024년 07월 고3 23번 · 정답률 49.0% 예측 가능성이 좌우하는 정부의 정책 대응 방식

④「선제적 문제 해결의 이점」은 대조의 한쪽만 담는다. 지문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같린다고 한다.

확인 —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전부인가」를 물어라.

주제는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이어서

일반론

40편 · 정답률 83.5% · 고1 13% · 고2 8% · 고3 5%

지문에 없는 자기개발·교육·환경 상투구를 늘어놓는다.

- 여덟 유형 중 정답률이 가장 높다. 지문과 무관한 말은 오히려 눈에 띈다.
-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같은 문장이 그것이다.
- 고1에서 13%로 가장 많고 고3에서 5%로 줄어든다. 상투구로는 상위권을 흔들지 못한다.

#2 2021년 6월 고1 21번 · 정답률 53.0% 목표와 기대가 좌우하는 선택적 지각

눈에 띄기를 꺼림·노력을 무의미하게·남에게 수용되는 사고방식 — 지문 어디에도 없는 추상 표현이다.

확인 — 지문을 안 읽어도 쓸 수 있는 문장인지 물어라. 그렇다면 답이 아니다.

비유매개물

28편 · 정답률 69.7% · 고1 8% · 고2 8% · 고3 3%

비유를 실어 나른 수레를 주제로 착각시킨다.

- 테니스로 행복을 말하면 오답은 테니스 규칙을 말한다. 물잔으로 스트레스를 말하면 오답은 물을 더 부으라고 한다.
- 정원사·티백·빙산·데카르트의 나무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
- 비유가 나오면 무엇이 수레이고 무엇이 짐인지 갈라 두어야 한다.

#28 2020년 6월 고1 21번 · 정답률 29.0% 사전식 해독으로 환원되지 않는 신체 언어

㉠'신체 언어와 프랑스어 비교'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이 프랑스어 사전 비유를 그대로 쓴다. 495편 중 정답률 최저급이다.

확인 — '~와 같다' '마치'가 보이면 그 문장 뒤에 오는 것이 주제다. 앞은 수레다.

사례세부

26편 · 정답률 74.2% · 고1 7% · 고2 8% · 고3 3%

예시의 세부를 주제 자리에 놓는다.

- 군대에서 침대를 정돈한 일화로 '작은 일부터'를 말하면 오답은 침대 관리와 기상 시간을 말한다.
- 비유매개물과 다르다. 비유는 애초에 다른 이야기지만, 사례는 지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더 붙잡기 쉽다.
- For example·such as 다음은 근거지 주장이 아니다.

#94 2022년 9월 고2 24번 · 정답률 54.0% 임상의로에 가려진 공중보건의 기여

㉠'서로 다른 신화들의 방대한 유사성'. 아스클레피오스의 두 딸은 눈치를 열려고 끌어온 예화였다.

확인 — 예시를 지워도 주제문이 남는지 보라. 남는 쪽이 주제다.

반대편

4편 · 정답률 57.8% · 고1 2% · 고2 0% · 고3 0%

양면을 가진 지문에서 오답이 한쪽씩만 담는다. 정답만 둘을 다 담는다.

- 네 편뿐이지만 평균 정답률 57.8%로 여덟 유형 중 가장 어렵다.
- 오답 하나하나가 지문에 쓰여 있다. 다만 절반씩이다.
- 지문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꺾이면 이 설계를 의심한다.

#48 2023년 9월 고1 23번 · 정답률 62.0% 일정 수준을 넘으면 뒤집히는 문화적 다양성의 효과

㉠'국가 정체성의 부정적 관점'은 양면 중 부정 쪽만 담는다. 정답만 '대조적 두 측면'을 다 담는다.

확인 — 지문이 두 면을 말했다면 선택지도 두 면을 답아야 한다.

일반론이 가장 쉽다. 지문과 무관한 말은 눈에 띄기 때문이다.

반대편과 부분진술이 어렵다. 그 문장들은 거짓이 아니다. 다만 전부가 아닐 뿐이다.

고1은 어휘로 가리고 고3은 논리로 가린다. 495편에서 확인된 학년 차이는 이것 하나다.

단원 지도

단원 번호는 군집 작업에서 붙은 것이라 이어지지 않는다. 오른쪽 끝은 그 단원이 가리키는 다른 단원이다.

1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40편

#2	지각은 구성물이다	8	#33 #101
#33	뇌가 감각에서 경험을 만든다	4	#2
#43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3	#3 #39
#10	감정을 정보로 오인하다	4	단독
#19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	5	#11 #28
#28	몸이 말하는 것	4	#19
#32	이해가 사유로 이어지려면	4	#84

2부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69편

#3	인지 자원의 배분	8	#43 #95
#16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7	#36 #39
#17	자기 한계를 어디에 긋는가	6	#25 #29 #39
#25	안전을 택할 때 잃는 것	5	#17 #996
#36	성과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	3	#16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5	#16 #17 #40 #43 #68 #83
#40	걱정은 통제되는가	4	#39
#18	작게 시작하기	5	#64
#21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4	#11
#35	성공을 무엇으로 재는가	3	단독
#41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	3	단독

3부 사람들 사이에서

44편

#15	작은 실천이 관계를 만든다	5	단독
#27	스스로 납득하게 만들기	4	#69
#29	피드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4	#17 #70
#20	지속 가능한 성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5	#46
#46	나쁜 소식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3	#20
#11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5	#19 #21 #31
#54	언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	#57
#57	소통이 사회를 만들었다	3	#49 #54

4부 배우고 가르치는 일

59편

#5	양육의 기준 세우기	7	#47 #61
#47	삶과 참여로 이루는 배움	5	#5
#949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5	#26 #48
#26	표현이 사고를 만든다	4	#22 #66 #949
#22	디지털 환경이 인지에 하는 일	5	#26 #42 #60
#7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6	#14 #58
#14	굳어진 것이 새것을 막는다	6	#7
#58	전문성의 한계	3	#7
#30	놀이는 무엇을 하는가	4	#53 #87

단원 지도 이어서

5부 조직과 시장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41편

#4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	7	#12 #77 #98
#12	기술이 약속한 것과 실제	6	#4 #73
#9	고객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6	#42
#42	데이터는 언제 가치가 되는가	3	#9 #22
#45	소셜 미디어를 무엇에 쓰는가	3	단독

6부 문화는 무엇을 하는가

33편

#50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4	단독
#34	음악은 무엇을 하는가	4	단독
#53	스포츠는 사회에서 무엇인가	3	#30
#56	장소는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가	3	#6 #76
#55	나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	단독

7부 세계를 아는 방식

38편

#31	과학은 객관적인가	4	#11 #51 #105 #107 #950
#51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3	#31
#950	연구자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3	#31
#49	과거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3	#57
#6	자연을 무엇으로 섬하는가	7	#13 #52 #56 #89
#13	경작이 땅에 하는 일	6	#6

차례

1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2	지각은 구성물이다	9
#33	뇌가 감각에서 경험을 만든다	18
#43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23
#10	감정을 정보로 오인하다	27
#19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	32
#28	몸이 말하는 것	38
#32	이해가 사유으로 이어지려면	43
짜	냄새로 하는 소통	48
짜	눈은 왜 그렇게 생겼는가	50
짜	몸이 마음을 만든다	52
짜	의식하지 않는 앞	54

2부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	인지 자원의 배분	57
#16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66
#17	자기 한계를 어디에 두는가	74
#25	안전을 택할 때 잃는 것	81
#36	성적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	87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91
#40	걱정은 통제되는가	97
#18	작게 시작하기	102
#21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108
#35	성공을 무엇으로 재는가	113
#41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	117
짜	목표를 넘어서는 것	121
짜	노력은 꼭 힘들어야 하는가	123
짜	고집과 저항	125
짜	말이 행동을 만든다	127
짜	혼자 있는 시간의 기능	129
짜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가	131
짜	자기 확신의 함정	133
짜	단히면 무엇을 잃는가	135

3부 사람들 사이에서

#15	작은 실천이 관계를 만든다	138
#27	스스로 납득하게 만들기	144
#29	피드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49
#20	지속 가능한 성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154
#46	나쁜 소식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160
#11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164
#54	언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70
#57	소통이 사회를 만들었다	174
짜	내가 옳다는 느낌	178
짜	말해지지 않은 것 읽기	180
짜	신뢰가 성립하는 조건	182
짜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는가	184
짜	문화의 안과 밖	186
짜	도덕은 어디서 오는가	188

4부 배우고 가르치는 일

#5	양육의 기존 세우기	191
#47	삶과 참여로 이루는 배움	199
#949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205
#26	표현이 사고를 만든다	211
#22	디지털 환경이 인지에 하는 일	216
#7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222
#14	굳어진 것이 새것을 막는다	229
#58	전문성의 한계	236
#30	놀이는 무엇을 하는가	240
짜	평가가 동기에 하는 일	245
짜	배운 것은 옮겨가는가	247
짜	과유불급과 그 예외	249
짜	문화적 다양성을 대하는 법	251
짜	포용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253
짜	역할과 자아의 경계	255
짜	편안하지 않은 것이 주는 경험	257

5부 조직과 시장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4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	260
#12	기술이 약속한 것과 실제	268
#9	고객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275
#42	데이터는 언제 가치가 되는가	282
#45	소셜 미디어를 무엇에 쓰는가	286
짜	멀쩡한 것을 낡게 만들기	290
짜	알고리즘이 하는 일	292
짜	기계를 어떤 존재로 대할 것인가	294
짜	소비로 하는 의사표시	296
짜	무엇을 사면 행복해지는가	298
짜	허위정보와 사실 확인	300
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지점	302
짜	규제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304

6부 문화는 무엇을 하는가

#50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07
#34	음악은 무엇을 하는가	312
#53	스포츠는 사회에서 무엇인가	317
#56	장소는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가	321
#55	나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25
짜	산업화가 바꾼 것	329
짜	공공은 무엇을 말하는가	331
짜	문화기관은 무엇을 지키는가	333
짜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335
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337
짜	음식이 신분을 표시할 때	339
짜	식문화가 사라질 때	341
짜	몸으로 하는 의례	343

7부 세계를 아는 방식

#31	과학은 객관적인가	346
#51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351
#950	연구자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355
#49	과거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359
#6	자연을 무엇으로 셈하는가	363
#13	경작이 땅에 하는 일	371
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법	378
짜	과학을 전달하는 일	380
짜	긴 시간을 상상하기	382
짜	지구가 도는 방식	384
짜	기후를 읽고 예측하는 법	386
짜	자기를 기록하는 일	388

1 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계는 어떤 통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이 부는 지각·감정·기억이 신호에서 구성되는 과정과, 감각 기관·소통·학습으로 이어지는 인접 문제를 함께 묻는다.

눈은 상을 찍지 않고 뇌는 기록을 재생하지 않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올라온 신호와 개념·맥락·언어가 함께 경험과 해석을 만든다.

그래서 이 부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무엇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묻는다.

아래층에서 시작한다 — 감각과 지각(#2), 그 위에서 뇌가 경험을 짓는 일(#33), 반복이 뇌를 바꾸는 일(#43).

그다음이 감정이다. 구별하는 능력(#19)과 오인하는 방식(#10), 그리고 몸이 먼저 말한다는 사실(#28).

마지막이 기억으로, 이해한 것이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다룬다(#32).

역방향 열여덟은 코퍼스 평균에 못 미치고 대신 지엽어휘와 비유매개물이 열어나다 — 뇌와 감각을 다루는 지문은 낯선 어휘와 비유를 많이 쓴다.

#2	지각은 구성물이다	8편	#19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	5편
#33	뇌가 감각에서 경험을 만든다	4편	#28	몸이 말하는 것	4편
#43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3편	#32	이해가 사용으로 이어지려면	4편
#10	감정을 정보로 오인하다	4편			

꼭지문 #101 냄새로 하는 소통 · #112 눈은 왜 그렇게 생겼는가 · #38 몸이 마음을 만든다 · #84 의식하지 않는 압

#2 지각은 구성물이다

8편 · 고1 3편 · 고3 5편

개념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들어온 신호가 아니라 뇌가 그것을 해석해 만들어 낸 결과다.

감각 뉴런은 자기가 무엇을 감지하는지 알지 못하고, 앞단 뉴런의 발화가 달라졌다는 것만 안다.

그 변화가 바깥에서 왔는지 안에서 왔는지도 구별하지 못한다.

의미는 신호 안에 없고 신호를 읽는 규칙 안에 있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이 단원은 해석이 쌓이는 층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다.

눈 근육의 미세한 떨림이 상을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2024년 5월 고3),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이 형태와 색과 위치를 따로 처리한다(2023학년도 수능).

그 위에서 목표와 기대가 무엇을 볼지 고르며(2021년 6월 고1),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다시 지어진다(2024년 10월 고1).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4 · 일반론 1 · 비유매개물 1 · 지엽어휘 1 · 사례세부 1

여덟 편 중 넷이 역방향이다 — 눈과 뇌가 충돌한다거나(2020년 4월 고3), 흐릿함이 눈을 보호한다는(2024년 5월 고3) 오답이 방향을 돌려놓는다.

2022년 6월 고3의 밑줄은 세계가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판본이 유일한 관점 없는 판본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니다

세계가 환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 우리의 실재가 '그' 판본이 아니라 '우리의' 판본이라는 뜻이다.

지문 차례

1	2021년 6월 고1 학평 21번	선택적 지각	53.0%	10
2	2023년 11월 고1 학평 21번	색의 객관성과 주관성	57.0%	11
3	2024년 10월 고1 학평 21번	기억의 재구성	37.0%	12
4	2020년 4월 고3 학평 23번	시각의 모호성 해소	70.0%	13
5	2021년 4월 고3 학평 21번	신경 부호의 해석 문제	71.0%	14
6	2022년 6월 고3 모평 21번	관점 의존적 실재	61.0%	15
7	2023학년도 수능 (2022년 11월 실시) 24번	시각 처리의 모듈성	80.0%	16
8	2024년 5월 고3 학평 21번	미세안구운동과 시각 유지	41.0%	17

같이 볼 것

→ #33 뇌가 감각에서 경험을 만든다 해석은 지각에서 멈추지 않는다. 같은 기제가 통증과 허기와 감정을 만든다.

→ #101 냄새로 하는 소통 화학적 신호는 꽃과 방문 생물 사이에서도 오가며, 사람이 지각하지 못하는 소통의 세계에도 쓰인다.

2021년 6월 고1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53.0%

밑줄 친 **want to use a hamm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2**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stack, or arrange evidence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3** Selective perception is based on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4** However,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may very well be related to our goals, interests, expectations, past experiences, or current demands of the situation - "with a hammer in hand,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5** This quote highlights the phenomenon of selective perception. **6** If we want to use a hammer, then the world around us may begin to look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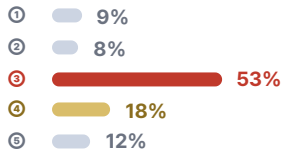
선택지

- ㉠ are unwilling to stand out
- ㉡ make our effort meaningless
- ㉢ intend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 ㉣ hope others have a viewpoint similar to ours
- ㉤ have a way of thinking that is accepted by other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53.0% · 최다 오답 ㉣ 18%



직독직해

목표와 기대가 좌우하는 선택적 지각

- 1** 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 2** 만약 우리가 어떤 일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방식"이 되거나 혹은 "저런 방식"이 되기를, 우리는 틀림없이 증거를 선택하거나, 쌓거나, 혹은 배열할 수 있다 방식으로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 3** 선택적 지각은 ~해 보이는 것에 기반한다 우리에게 두드러진 것으로.
- 4** 그러나, ~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매우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상황의 현재 요구와 -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못처럼 보인다."
- 5** 이 인용문은 강조한다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 6**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망치를 사용하기를,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시작할지도 모른다 보이기 마치 그것이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어휘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지각

자신의 목표와 기대에 맞는 정보만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현상

stack evidence 증거를 쌓다

원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쌓음

미끼

일반론

밑줄 친 표현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할 때'인데, 오답 셋이 주어를 남의 시선으로 옮긴다.

㉠ 3번 문장의 stand out을 '눈에 띄기 싫다'로 비튼다

㉡ 노력 이야기는 지문에 나오지 않는다

㉢ 2번의 viewpoint를 남의 관점으로 옮긴다

㉤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사고방식으로 바꾼다

2023년 11월 고1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57.0%

밑줄 친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Many people take the commonsense view that color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or of the light that bounces off them. 2 They say a tree's leaves are green because they reflect green light — a greenness that is just as real as the leaves. 3 Others argue that color doesn't inhabit the physical world at all but exists only in the eye or mind of the viewer. 4 They maintain that if a tree fell in a forest and no one was there to see it, its leaves would be colorless — and so would everything else. 5 They say there is no such thing as color; there are only the people who see it. 6 Both positions are, in a way, correct. 7 Color is objective and subjective — "the place," as Paul Cezanne put it, "where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8 Color is created when light from the world is registered by the eyes and interpreted by the b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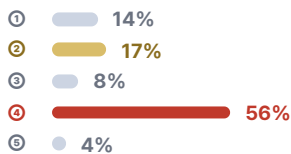
선택지

- ㉠ we see things beyond the range of perception
- ㉡ objects appear different by the change of light
- ㉢ your perspectives and others' reach an agreement
- ㉣ our mind and physical reality interact with each other
- ㉤ structures of the human brain and the universe are similar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57.0% · 최다 오답 ㉡ 17%



직독직해

객관적 속성이자 주관적 경험인 색

- 1 많은 사람들이 색은 사물 또는 사물로부터 튕겨 나오는 빛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상식적인 견해를 취한다.
- 2 그들은 나뭇잎이 녹색 빛(정확히 나뭇잎만큼 진짜인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이라고 말한다.
- 3 다른 사람들은 색이 물리적인 세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보는 사람의 눈이나 정신 안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4 그들은 만약 나무가 숲에서 쓰러지고 그것을 볼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없다면, 그것의 잎은 색이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그들은 색 같은 '것'은 없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만 있다고 말한다.
- 6 두 가지 입장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옳다.
- 7 색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이며, Paul Cezanne이 말했듯이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이다.
- 8 색은 세상으로부터의 빛이 눈에 의해 감지되고 뇌에 의해 해석될 때 만들어진다.

어휘

objective property 객관적 속성

사물 자체에 있다고 여겨지는 성질

registered by the eyes 눈에 등록된

빛이 감각기관에 받아들여지는 단계

where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외부 세계의 빛과 뇌의 해석이 만나 색이 만들어지는 지점

미끼

비유매개물

두 입장이 모두 옳다는 결론인데, 오답들은 한쪽만 담거나 비유를 문자로 받는다.

㉠ 7~8번은 빛이 눈과 뇌에서 색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 2번의 반사광만 붙들어 객관 쪽 한 겹만 담는다

㉢ 7번의 만남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뇌와 우주 사이이다

㉤ 세잔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을 구조 유사성으로 읽는다

2024년 10월 고1 학평 21번

합의 · 정답률 37.0%

밑줄 친 Seeing is not believ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When we see something,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into shapes, colors, and concepts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2** We recode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3** We reconstruct memories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4** This is a useful trait. **5** It'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6**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7** But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comes at a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8** Instead, we see the world through our assumptions, motivations, and past experiences. **9**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completely undermined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10** Seeing is not believing.

선택지

- ㉠ Abstract ideas are hard to explain without relevant images.
- ㉡ It takes longer to retrieve unconsciously encoded information.
- ㉢ Beliefs formed from repeated experiences do not easily change.
- ㉣ Our memories fall short of an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 ㉤ Comprehension of facts precedes the formation of abstract concept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37.0% · 최다 오답 ㉤ 20%

- ㉠ 14%
- ㉡ 13%
- ㉢ 15%
- ㉣ 38%
- ㉤ 20%

직독직해

영상 재생이 아닌 재구성으로 작동하는 기억

- 1**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양, 색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운 개념들로 해체한다.
- 2**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화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
- 3**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한다 ~하기보다는 기억에서 영상을 꺼내기.
- 4** 이것은 유용한 특성이다.
- 5** 그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 JPG와 같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약간 비슷하게.
- 6**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완벽히 세세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학습하고, 연결하려고 고군분투한다 자신들이 학습한 것들 사이를.
- 7** 그러나 세상을 추상적 생각과 특징으로 재현하는 것은 대가를 치른 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는.
- 8**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의 가정, 동기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 9** 우리의 기억이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표상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발견은 목격자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시켰다.
- 10**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다.

어휘

reconstruct memories 기억을 재구성하다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표상에서 다시 짜맞춤

eyewitness testimony 목격자 증언

기억의 재구성 특성 때문에 법적 우위를 잃은 목격자 증언

미끼

지엽어휘

오답 넷이 모두 지문 어휘를 재조합한다. 결론을 말하는 것은 정답뿐이다.

- ㉠ 5번의 image와 7번의 abstract를 뒤섞는다
- ㉡ past experiences를 신념의 고착으로 옮긴다

- ㉢ retrieve-recode를 시간 문제로 바꾼다
- ㉤ 손실의 문제를 순서의 문제로 바꾼다

2020년 4월 고3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70.0%

① The act of "seeing" appears so natural that it is difficult to appreciate the vastly sophisticated machinery underlying the process. ② It may come as a surprise that about one-third of the human brain is devoted to vision. ③ The brain has to perform an enormous amount of work to unambiguously interpret the billions of photons streaming into the eyes. ④ Strictly speaking, all visual scenes are ambiguous. ⑤ Your brain goes through a good deal of trouble to disambiguate the information hitting your eyes by taking context into account and making assumptions. ⑥ But all this doesn't happen effortlessly, as demonstrated by patients who surgically recover their eyesight after decades of blindness: ⑦ they do not suddenly see the world, but instead must learn to see again. ⑧ At first the world is a chaotic attack of shapes and colors, and even when the optics of their eyes are perfectly functional, their brain must learn how to interpret the data coming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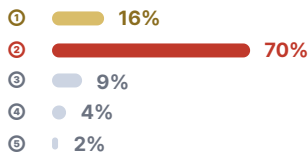
선택지

- ㉠ perceptual clash between brain and eyes in the act of seeing
- ㉡ significant role of the brain in processing visual information
- ㉢ unintended influence of visually ambiguous data in learning
- ㉣ various advantages of using insight to understand context
- ㉤ common optical illusions in discerning visual stimuli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0.0% · 최다 오답 ㉢ 16%



직독직해

모호한 시각 정보를 해석해내는 뇌의 정교한 작업

- ① '보는 것'이라는 행위는 너무 당연하게 보여서 그 과정의 기저에 있는 대단히 복잡한 장치의 진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 ② 인간 뇌의 약 삼분의 일이 시각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다.
- ③ 뇌는 눈 속으로 흘러드는 수십억 개의 빛의 요소가 되는 입자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 ④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장면은 모호하다.
- ⑤ 여러분의 뇌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정보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고려하고 가정을 함으로써 상당한 수고를 들인다.
- ⑥ 그러나 수십 년간 눈이 멀었다가 자신의 시력을 수술로 회복한 환자들에 의해 증명되듯이 이 모든 것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 ⑦ 그들은 갑자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다시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 ⑧ 처음에 세상은 모양과 색의 혼란스러운 습격이며, 심지어 그들 눈의 광학 체계가 완벽하게 기능할 때에도 그들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워야만 한다.

어휘

ambiguous 모호한
여러 해석이 가능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disambiguate 모호성을 해소하다
맥락과 가정을 동원해 하나의 해석으로 확정함

미끼 역방향

뇌가 모호한 입력을 해석해낸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은 그 일을 충돌·방해·착시로 돌린다.

- ㉠ 뇌와 눈의 협업을 충돌로 뒤집는다
- ㉡ 4번의 ambiguous와 7번의 learn을 이어 붙인다
- ㉢ 5번의 context만 떼어 통찰 이야기로 바꾼다
- ㉣ 착시는 지문에 없다. 시각 소재의 다른 갈래

2021년 4월 고3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71.0%

밑줄 친 the mind's eye is blin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All any neuron in the brain ever "sees" is that some change occurred in the firing patterns of its upstream peers. 2 It cannot tell whether such change is caused by an external disturbance or by the brain's constant self-organized activity. 3 Thus, neurons located in networks of other neurons do not "know" what the brain's sensors are sensing; they simply respond to their upstream inputs. 4 In other words, the neurons have no way of relating or comparing their spikes to anything else because they only receive retinal correspondences or processed "representations" of the sensory input. 5 But establishing correspondences without knowing the rules by which those correspondences are constructed is like comparing Mansi words with Khanty words when we understand neither language. 6 Only after we have defined the vocabulary of one language can we understand the corresponding meaning of words in the other. 7 Similarly, without further information, sensory neurons can attach no meaning whatsoever to their spikes. 8 Put simply, the mind's eye is blind.

선택지

- ㉠ The brain sees only by linking imagination and experience.
- ㉡ Neurons respond to sensory input without understanding it.
- ㉢ Signals carried by neurons cannot be explained in experiments.
- ㉣ The brain stops imagining scenes and starts storing visual data.
- ㉤ Some visual inputs do not always need the brain for their processing.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1.0% · 최다 오답 ㉠ 13%

- ㉠ 13%
- ㉡ 72%
- ㉢ 5%
- ㉣ 5%
- ㉤ 5%

직독직해

기준 규칙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감각 뉴런의 신호

- 1 뇌의 어떤 뉴런이 '보는' 전부라고는 앞단 동료 뉴런들의 발화 양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 2 그것은 그러한 변화가 외부의 교란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뇌의 끊임없는 자기 조직화된 활동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3 그러므로 다른 뉴런들의 망에 위치한 뉴런은 뇌의 센서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들은 단순히 자신의 앞단 입력에 반응한다.
- 4 다시 말해서, 뉴런은 감각 입력의 망막 대응 관계나 처리된 '표상'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기 신호를 다른 어떤 것과 관련짓거나 비교할 방법이 없다.
- 5 하지만 그러한 대응이 구성된 규칙을 알지 못한 채로 대응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 언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Mansi어 단어를 Khanty어 단어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 6 한 언어의 어휘를 정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언어에 있는 단어들의 대응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7 이와 유사하게, 그 이상의 정보 없이는 감각 뉴런들은 그 어떤 의미도 자신의 전기 신호에 부여할 수 없다.
- 8 간단히 말해서, 마음의 눈은 보지 못한다.

어휘

firing patterns 발화 양상
뉴런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

correspondences 대응 관계

규칙을 모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짝지음

upstream peers 앞단 동료 뉴런
입력을 보내오는 앞단의 신경세포

미끼

역방향

뉴런이 의미를 모른 채 반응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상상·실험·저장으로 논점을 옮기거나 뇌가 필요 없다고 뒤집는다.

- ㉠ 상상은 지문에 없다. mind's eye is blind를 거꾸로 읽는다
- ㉢ 저장으로 논점을 옮긴다

- ㉡ 실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 ㉤ 뇌 없이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2022년 6월 고3 모평 21번

함의 · 정답률 61.0%

밑줄 친 "view from nowhe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2**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3** It is to say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our version, not the version. **4**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that makes sense,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 **5**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not "as it truly is," because there is no "as it truly is"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form. **6** Philosopher Thomas Nagel argued that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since we cannot see the world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and that perspective influences what we see. **7**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through the human lenses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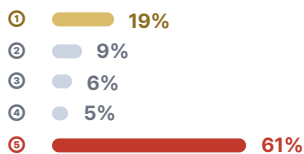
선택지

- ㉠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 ㉡ valuabl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 ㉢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 ㉣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s
- ㉤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1.0% · 최다 오답 ㉣ 19%



직독직해

관점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

- 1** 우리의 세계관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 우리가 공유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 2** 이것은 우리의 마음 외부에 현실이 없다거나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 3** 그것은 우리가 지닌 현실 버전은 바로 그것, 즉 '우리의' 버전이지 (유일한) '그' 버전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 4** 이론적 구성물로서가 아닌, 이치에 맞는 단일하거나, 보편적이거나 또는 권위 있는 버전은 없다.
- 5** 우리는 세계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 없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란 없기 때문이다.
- 6** 철학자 Thomas Nagel은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의 시선'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관점에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를 볼 수 없고, 그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7**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Since we can see the world only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and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our reality is precisely our version of it rather than the version.

어휘

view from nowhere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의 시선
관점 없이 세계를 보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리킨 Thomas Nagel의 표현
human lenses 인간의 렌즈
세계를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틀

theoretical construct 이론적 구성물
보편적 판본이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미끼

역방향

밑줄 친 표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문 안이라, 지문과 같은 말을 담은 선택지가 오답이 된다.

- ㉠ 지문 내용 그대로다. 부정문 안이라 오히려 오답이 된다
- ㉡ 소수의 관점으로 좁힌다

- ㉢ 다수가 지닌 관점으로 바꾼다
- ㉣ 편견 극복으로 방향을 돌린다

2023학년도 수능 (2022년 11월 실시) 24번

제목 · 정답률 80.0%

1 Different parts of the brain's visual system get information on a need-to-know basis. **2** Cells that help your hand muscles reach out to an object need to know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object, but they don't need to know about color. **3** They need to know a little about shape, but not in great detail. **4** Cells that help you recognize people's faces need to be extremely sensitive to details of shape, but they can pay less attention to location. **5**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anyone who sees an object sees everything about it — the shape, color, location, and movement. **6** However, one part of your brain sees its shape, another sees color, another detects location, and another perceives movement. **7** Consequently,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it is possible to see certain aspects of an object and not others. **8** Centuries ago, people found it difficult to imagine how someone could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at color it is. **9** Even today,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to learn about people who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ere it is, or see it without seeing whether it is mo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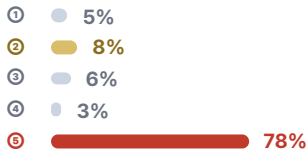
선택지

- ㉠ Visual Systems Never Betray Our Trust!
- ㉡ Secret Missions of Color-Sensitive Brain Cells
- ㉢ Blind Spots: What Is Still Unknown About the Brain
- ㉣ Why Brain Cells Exemplify Nature's Recovery Process
- ㉤ Separate and Independent: Brain Cells' Visual Perception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0.0% · 최다 오답 ㉢ 8%



직독직해

필요한 정보만 나누어 처리하는 뇌 시각 시스템

- 1** 뇌 시각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은 알아야 할 만큼만 정보를 얻는다.
- 2** 여러분의 손 근육이 어떤 물체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세포들은 그 물체의 크기와 위치를 알아야 하지만 색깔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
- 3** 그것들(그 세포들)은 모양에 대해 약간 알아야 하지만, 매우 자세하진 아니다.
- 4**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돕는 세포는 모양의 세부 사항에 극도로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위치에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다.
- 5** 어떤 물체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 모양, 색깔, 위치, 움직임 등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 6** 하지만, 여러분의 뇌의 한 부분은 그것의 모양을 보고, 다른 한 부분은 색깔을 보며, 또 다른 부분은 위치를 감지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움직임을 인식한다.
- 7** 따라서 국소적 뇌 손상 후 물체의 특정한 측면은 볼 수 있으면서 다른 측면은 볼 수 없는 것이 가능하다.
- 8** 수 세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색깔이 무엇인지 못 보면서 그 물체를 볼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 9**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보거나, 또는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놀라워할 수 있다.

어휘

need-to-know basis 알아야 할 만큼만
각 세포가 필요한 정보만 받는 방식

perceives movement 움직임을 인식하다
뇌의 별도 영역이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처리

localized brain damage 국소적 뇌 손상
특정 영역만 다치는 경우

미끼

사례세부

형태·색·위치를 뇌의 다른 부분이 따로 처리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은 예시를 주제로 끌어올린다.

- ㉠ 신뢰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예시로 든 색 세포를 주제로 삼는다
- ㉢ 국소 손상을 미지의 영역으로 바꾼다
- ㉣ 회복은 지문에 없다

2024년 5월 고3 학평 21번

합의 · 정답률 41.0%

밑줄 친 *Approximate perfection is better than perfect perfec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Turn the lights out and point the beam of a small flashlight up into one of your eyes. 2 Shake the beam around while moving your gaze up and down. 3 You should catch glimpses of what look like delicate branches. 4 These branches are shadows of the blood vessels that lie on top of your retina. 5 The vessels constantly cast shadows as light streams into the eye, but because these shadows never move, the brain ceases responding to them. 6 Moving the flashlight beam around shifts the shadows just enough to make them momentarily visible. 7 Now you might wonder if you could cause an image to fade just by staring at something unmoving. 8 But that is not possible because the visual system constantly jiggles the eye muscles, which prevents the perfect stabilization of images of the world. 9 These muscle movements are unbelievably small, but their effect is huge. 10 Without them, we would go blind by tuning out what we see shortly after fixating our gaze! 11 It's an interesting notion: 12 Approximate perfection is better than perfect perfection.

선택지

- ㉠ What makes your vision blurry actually protects your eyes.
- ㉡ The more quickly an object moves, the more sensitively eyes react.
- ㉢ Eyes exposed to intense light are subject to distortion of images.
- ㉣ Constant adjustment of focusing makes your eye muscles tired.
- ㉤ Shaky eye-muscle movements let us see what the brain might ignore.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41.0% · 최다 오답 ㉠ 32%

- ㉠ 32%
- ㉡ 10%
- ㉢ 10%
- ㉣ 8%
- ㉤ 40%

직독직해

지속적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눈 근육의 미세한 떨림

- 1 조명을 끄고 작은 손전등의 빛줄기를 위쪽으로 여러분의 한쪽 눈에 비춰라.
- 2 여러분의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빛줄기를 이리저리 흔들어라.
- 3 여러분은 미세한 가지들처럼 보이는 것을 얼핏 보게 될 것이다.
- 4 이 가지들은 여러분의 망막 위에 있는 혈관의 그림자들이다.
- 5 그 혈관들은 빛이 눈으로 흘러 들어오는 동안 끊임없이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이 그림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이것들에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
- 6 손전등 빛줄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그림자가 잠깐 눈에 보이게 할 만큼만 그림자를 이동시킨다.
- 7 이제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를 단지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 8 그러나 시각 체계가 끊임없이 눈의 근육을 가볍게 흔들고 있고 이것이 세상의 이미지들의 완벽한 안정화를 막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 9 이 근육의 움직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 10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시선을 고정한 직후에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 11 이것은 흥미로운 개념이다:
- 12 완벽에 가까운 것이 완전히 완벽한 것보다 더 낫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The constant, microscopic movements of our eye muscles are essential because they prevent images from stabilizing and fading away, allowing us to maintain our vision.

어휘

retina 망막

ceases responding 반응을 멈춘다

stabilization of images 이미지의 안정화

미끼

역방향

미세한 떨림이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떨림의 기능을 뒤집거나 물체의 속도와 강한 빛으로 논점을 옮긴다.

- ㉠ 떨림을 흐름으로 읽고 기능을 보호로 바꾼다
- ㉡ 손전등 실험의 빛만 떼어 간다

- ㉢ 물체의 속도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근육 움직임을 피로의 원인으로 뒤집는다

#33 뇌가 감각에서 경험을 만든다

4편 · 고2 1편 · 고3 3편

개념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그 자체로 경험이 아니다.

같은 복통이 식탁에서는 허기가 되고 법정에서는 불신이 되는 것은 신호에 다른 개념이 붙기 때문이다.

뇌는 그 일을 예측으로 하며, 앞선 경험에서 얻은 규칙으로 신호가 무엇일지 미리 정해 놓고 맞춰 본다.

그래서 기대가 바뀌면 경험도 실제로 바뀐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그 구성 과정을 감정에서 본 것이 2022년 7월 고3이고, 미각에서 본 것이 2024년 3월 고3이다.

미각 지각에 뇌의 1퍼센트 남짓만 쓰이는 것도 나머지를 다른 감각으로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다(2019년 7월 고3).

고통과 쾌락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항상성의 바탕이다(2024년 10월 고2).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3 · 통념 1

역방향 셋이 감각에서 개념으로 가는 방향을 거꾸로 놓는다 — 이를테면 정신 건강이 신체 수행에 미치는 영향(2022년 7월 고3), 고객 평점이 가격을 정한다(2024년 3월 고3).

첫 문장의 통념을 그대로 답으로 내놓는 오답도 있다(2019년 7월 고3).

이것은 아니다

감각기관이 무엇을 받아들이는가가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 되는가를 다룬다.

지문 차례

1	2024년 10월 고2 학평 23번	항상성과 쾌락-고통 균형	75.0%	19
2	2019년 7월 고3 학평 23번	다감각 통합과 예측	59.0%	20
3	2022년 7월 고3 학평 23번	구성된 감정	86.0%	21
4	2024년 3월 고3 학평 21번	기대와 지각의 구성	65.0%	22

같이 볼 것

→ #2 지각은 구성물이다 지각에서 일어난 일이 통증과 허기와 감정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2024년 10월 고2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75.0%

1 Based on discoveries in neuroscience, pain and pleasure are formed and processed in the same area of the brain. **2** Our bodies constantly strive for homeostasis, which is defined as the balance of bodily functions. **3**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s, which may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4** Pleasure and pain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y seem to work together and are heavily reliant on one another and keep balance. **5** If you imagine pleasure and pain as the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 you can easily understand that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s, the other must correspondingly fall. **6** We've all heard the expression, "No pain, no gain." **7** Well, according to psychiatrist Dr. Anna Lembke,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8** She says that our attempts to escape being miserable are in fact making us even more miserable. **9** This is because pain is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of our ability to maintain a neutral state, and allowing it will in turn reset our internal scale back to balance.

선택지

- ㉠ interplay of multiple emotions that hinder homeostasis
- ㉡ disruption of pleasure's beneficial functioning due to pain
- ㉢ counteraction of pleasure and pain in maintaining stability
- ㉣ overflow of opposite feelings that induces emotional unrest
- ㉤ ignorance of necessity of other feelings than pain and pleasure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5.0% · 최다 오답 ㉣ 10%

- ㉠ 5%
- ㉡ 10%
- ㉢ 75%
- ㉣ 5%
- ㉤ 4%

직독직해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균형을 이루는 고통과 쾌락

- 1** 뇌 과학의 발견들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형성되고 처리된다.
- 2**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몸의 기능들의 균형이라고 정의된다.
- 3** 잠재적인 고점과 저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몸의 효과적인 보상 기제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 4** 쾌락과 고통은 동일한 동전의 두 면과 같아서 그들은 함께 작동하는 것 같으며 서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균형을 유지한다.
- 5** 만약에 여러분이 쾌락과 고통을 저울 위의 두 반대 지점으로 상상한다면, 여러분은 두 지점 중 한 지점이 올라가면 다른 한 지점이 상응하여 틀림없이 내려갈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6** 우리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모두 들어본 적이 있다.
- 7** 자, 정신과 의사인 Dr. Anna Lembke에 따르면,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 8** 그녀는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시도가 사실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 9** 이는 고통이 실제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능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부 저울을 균형 상태로 다시 맞출 것이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Pleasure and pain are tightly linked components of our brain's homeostatic system, meaning that attempts to constantly escape pain can disrupt balance and lead to greater misery.

어휘

homeostasis 항상성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작용
neutral state 중립 상태
쾌락과 고통이 균형을 이룬 지점

compensatory mechanisms 보상 기제
극단을 완충해주는 몸의 장치

미끼 역방향

고통과 쾌락이 서로를 상쇄해 균형을 만든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그 상쇄를 붕괴로 돌린다.

- ㉠ 항상성을 돕는 기제를 방해로 뒤집는다
- ㉡ 상쇄를 붕괴로 바꾼다
- ㉢ 균형을 정서적 불안으로 읽는다
- ㉣ 다른 감정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2019년 7월 고3 학평 23번

제목 · 정답률 59.0%

1 Taste is crucial to our survival. **2** In a way, one might think of it as the most important of our senses — helping us to distinguish between that which is nutritious and that which may be poisonous. **3** And yet, on closer inspection, it turns out not to be so important, at least not in terms of perception. **4** While more than half of the brain is involved in processing what we see, only something like 1% of the cerebral cortex is directly involved in taste perception. **5** The reason for this is that our brains pick up on the statistical regularities of the environment, and so we learn to predict the likely taste and nutritional properties of potential foodstuffs on the basis of other sensory cues, such as color and smell. **6** This allows us to assess the likely consequences of ingesting a whole host of different food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stick them into our mouths first in order to determine what they taste 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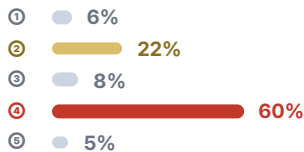
선택지

- ㉠ Good Looking Foods Taste Good As Well!
- ㉡ Taste: The Most Critical Sense for Survival
- ㉢ Color & Smell: The Fake Cues for Nutrition
- ㉣ How We Perceive Foods Without Tasting Them
- ㉤ All of Our Senses Help Us Understand Our Surrounding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59.0% · 최다 오답 ㉢ 22%



직독직해

다른 감각적 단서로 맛을 예측하는 뇌의 방식

- 1** 미각은 우리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
- 2** 어떤 면에서 누군가는 그것이 우리가 영양가 있는 것과 독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 3** 하지만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지각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 4** 뇌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반면, 대뇌 피질의 고작 1퍼센트 정도만이 맛을 지각하는 데 직접 관여한다.
- 5** 이것은 우리의 뇌가 환경의 통계적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색과 냄새 같은 다른 감각적 단서를 기반으로 잠재적 식품의 맛과 영양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예측하게 되기 때문이다.
- 6** 이것은 음식이 어떤 맛일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먼저 입속에 넣어볼 필요 없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하도록 해준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Although taste is essential for survival, taste perception involves a very small portion of the brain because we predict food properties using other sensory cues such as vision and smell.

어휘

cerebral cortex 대뇌 피질
미각 지각에 직접 관여하는 비율이 1퍼센트 남짓인 영역

sensory cues 감각적 단서
색과 냄새처럼 맛을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정보

statistical regularities 통계적 규칙성
뇌가 환경에서 포착해 예측에 쓰는 패턴

미끼 통념

And yet 앞이 통념이고 뒤가 주제인데, 최다 오답은 그 앞에서 멈춘다.

- ㉠ 다른 감각 단서를 맛의 보충으로 바꾼다
- ㉡ 1·2번의 통념 그 자체. And yet 앞에서 멈춘 것
- ㉢ 예측 단서를 가짜라고 뒤집는다
- ㉣ 감각 일반론으로 넓힌다

2022년 7월 고3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86.0%

1 From your brain's perspective, your body is just another source of sensory input. **2** Sensations from your heart and lungs, your metabolism, your changing temperature, and so on, are like ambiguous blobs. **3** These purely physical sensations inside your body have no objective psychological meaning. **4** Once your concepts enter the picture, however, those sensations may take on additional meaning. **5** If you feel an ache in your stomach while sitting at the dinner table, you might experience it as hunger. **6** If flu season is just around the corner, you might experience that same ache as nausea. **7** If you are a judge in a courtroom, you might experience the ache as a gut feeling that the defendant cannot be trusted. **8** In a given moment, in a given context, your brain uses concepts to give meaning to internal sensations as well as to external sensations from the world, all simultaneously. **9** From an aching stomach, your brain constructs an instance of hunger, nausea, or mistrust.

선택지

- ㉠ influence of mental health on physical performance
- ㉡ physiological responses to extreme emotional stimuli
- ㉢ role of negative emotions in dealing with difficult situations
- ㉣ necessity of staying objective in various professional contexts
- ㉤ brain's interpretation of bodily sensations using concepts in context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6.0% · 최다 오답 ㉡ 5%

- ㉠ 5%
- ㉡ 5%
- ㉢ 4%
- ㉣ 3%
- ㉤ 84%

직독직해

개념을 통해 신체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뇌

- 1** 당신의 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신체는 단지 감각 입력의 또 다른 원천일 뿐이다.
- 2** 당신의 심장과 폐, 신진대사, 변화하는 체온 등에서 생기는 감각은 모호한 덩어리와 같다.
- 3** 당신의 신체 내의 그러한 순전히 신체적인 감각은 어떤 객관적인 심리적 의미도 없다.
- 4** 그러나 일단 당신의 개념이 개입하면, 그러한 감각은 추가적인 의미를 띌 수도 있다.
- 5** 만약 당신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위의 통증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것을 배고픔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 6** 만약 독감 시기가 임박했다면, 당신은 같은 통증을 메스꺼움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 7** 만약 당신이 법정의 재판관이라면, 당신은 그 통증을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는 직감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 8** 주어진 순간, 주어진 맥락에서, 당신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온 외부의 감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 9** 위의 통증으로부터 당신의 뇌는 배고픔, 메스꺼움, 불신의 사례를 구성한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Physical sensations inside the body carry no psychological meaning of their own, and the brain uses concepts to give them meaning in context, so the same ache becomes hunger, nausea, or mistrust.

어휘

sensory input 감각 입력
몸 안팎에서 뇌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

concepts 개념
내부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

ambiguous blobs 모호한 덩어리
객관적 심리 의미가 없는 신체 감각

미끼 역방향

몸의 감각이 개념과 맥락을 통해 뜻을 얻지만, ㉠·㉡는 방향을 뒤집고 ㉢·㉣는 사례를 논지로 부풀린다.

- ㉠ 감각에서 개념으로 가는 방향을 정신에서 신체로 뒤집는다
- ㉡ 개념이 감각에 뜻을 준다는 순서를 뒤집는다
- ㉢ 메스꺼움·불신을 부정 감정 이야기로 옮긴다
- ㉣ 법정 예시의 판사만 떼어 간다

2024년 3월 고3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65.0%

다음 밑줄 친 *you taste its pric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② It is true of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③ For example, in a study of wine,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and its cos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④ That wasn't because the subjects consciously believed that the higher-priced wines should be the better ones and thus revised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⑤ Or rather,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⑥ We know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and the imaging showed that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really did activate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more than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⑦ That's related to the placebo effect. ⑧ Like pain, taste is not just the product of sensory signals;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you taste its price.

선택지

- ㉠ Customer ratings determine the price of a product.
- ㉡ We fool ourselves into thinking our unplanned buying was reasonable.
- ㉢ We immediately dismiss opposing opinions without any consideration.
- ㉣ The brain shows consistent response regardless of personal preference.
- ㉤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influences one's subjective experience of it.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5.0% · 최다 오답 ㉠ 21%

- ㉠ 21%
- ㉡ 3%
- ㉢ 4%
- ㉣ 7%
- ㉤ 64%

직독직해

감각 신호를 넘어 심리 요인이 구성하는 지각

- ① 지각이 구성이라는 것은 단지 시각 및 청각 정보와 같은 감각적 투입에 대한 한 사람의 지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② 이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각, 즉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먹는 음식,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지각에도 해당된다.
- ③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한 연구에서 와인이 가격 정보를 가린 상태로 시음되었을 때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지만, 와인에 가격표가 붙었을 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④ 이는 피험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일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믿어서, 이에 따라 그들이 가졌던 어떠한 의견이든지 수정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 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단지'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 ⑥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피험자들이 와인을 시음할 때 연구원들이 그들의 뇌 활동을 영상화했고, 그 영상은 그들이 고가의 와인 한 잔이라고 믿는 것을 마시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라벨이 붙었던 같은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맛의 쾌감을 담당하는 중추를 실제로 더 활성화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 ⑦ 이는 플라세보 효과와 관련이 있다.
- ⑧ 통증과 같이 미각은 단순히 감각 신호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리적 요인에도 좌우된다. 여러분은 와인을 단순히 맛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가격을 맛보는 것이다.

어휘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지각은 구성이다
감각 신호만이 아니라 심리 요인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correlation 상관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

placebo effect 플라세보 효과
기대만으로 실제 반응이 달라지는 현상

미끼

역방향

가격을 안다는 것이 실제 맛을 바꾼다는 것이 논지인데, 최다 오답은 그 인과를 뒤집는다.

- ㉠ 가격이 경험을 바꾼다는 인과를 거꾸로 놓는다
- ㉡ 총동구매 합리화로 논점을 옮긴다
- ㉢ 반대 의견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뇌 영상이 달랐다는 결과와 정반대

#43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3편 · 고1 2편 · 고2 1편

개념

뇌는 굳어 있지 않고 쓰는 대로 다시 배선된다.

그래서 안정감도 타고난 성품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향상되는 기술이 된다.

다만 바뀌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반복 연습은 뇌 회로를 강화하고, 낭독은 여러 뇌 영역과 연결 구조를 활성화하며, 낮에 배운 것은 잠자는 동안 기억에 공고화된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반복된 경험이 회로를 다시 짠다는 것이 2021년 11월 고1이다.

소리 내어 읽으면 발음과 청취까지 함께 켜져 묵독보다 넓은 영역이 쓰인다(2025년 3월 고1).

하루에 었힌 것을 밤사이 뇌가 재생하며 옮겨 담기 때문에, 벼락치기보다 나눠 하는 편이 낫는다(2022년 9월 고2).

가려지는 방식

비유매개물 1 · 역방향 1 · 지엽어휘 1

세 편이 미끼를 하나씩 나눠 갖는다 — 첼로 비유에 걸려 악기 연습을 고르거나(2021년 11월 고1), 낭독을 묵독으로 뒤 집는다(2025년 3월 고1).

수면 소재의 실용 갈래로 새는 오답도 있다(2022년 9월 고2).

이것은 아니다

뇌의 고정된 기능 목록이 아니라 경험과 활동이 뇌의 회로·활성·기억에 남기는 변화를 다룬다.

지문 차례

1	2021년 11월 고1 학평 23번	신경가소성	78.0%	24
2	2025년 3월 고1 학평 24번	낭독의 두뇌 활성화와 말하기 능력 향상	83.0%	25
3	2022년 9월 고2 학평 23번	수면 중 기억 공고화	81.0%	26

같이 볼 것

→ #3 인지 자원의 배분 무엇을 언제 하느냐가 곧 가소성의 입력이 된다.

→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태도를 반복하면 회로가 바뀐다. 부정 편향을 고치라는 처방의 근거.

2021년 11월 고1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78.0%

①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but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through regular practice. ② He explains,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③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one will get better at it." ④ What this means is that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⑤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⑥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s,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⑦ Or in the words of Donald Hebb,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⑧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bottom line —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선택지

- ㉠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
- ㉡ role of brain circuits in improving body movements
- ㉢ importance of practice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 ㉣ effect of taking a break on enhancing memory capacity
- ㉤ difficulty of discovering how neurons in the brain work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8.0% · 최다 오답 ㉤ 9%

- ㉠  78%
- ㉡  9%
- ㉢  4%
- ㉣  4%
- ㉤  4%

직독직해

반복된 경험으로 재편되는 뇌의 가소성

- ① 우리는 생각했었다 뇌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따르면 신경과학자 Richard Davidson에, 우리는 이제 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 특정 한 뇌 회로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
- ② 그는 설명한다, "안녕감은 배우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 ③ 만약 어떤 이가 안녕감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 ④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감사하고, 편안하고, 또는 자신감을 갖도록,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감사, 편안함, 또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 ⑤ 여러분의 뇌는 형성된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
- ⑥ 뉴런은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점화할수록, 그것은 신경 경로로 더 빠르게 발달하게 되고, 이는 뇌에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 ⑦ 혹은 Donald Hebb의 말을 빌리면, "뉴런은 함께 점화하는 함께 연결된다."
- ⑧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전제이다: 결론은 — 우리가 뇌를 위한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행복해지도록.

어휘

brain circuit 뇌 회로
반복된 활동으로 강화되는 신경 연결

neural pathway 신경 경로
함께 점화한 뉴런들이 만드는 지속적 통로

미끼

비유매개물

첼로는 비유이고 주제는 안녕감이 연습으로 길러진다는 것인데, 오답들은 비유와 재료를 주제로 삼는다.

- ㉠ 회로 이야기를 신체 운동으로 옮긴다
- ㉡ 휴식과 기억 용량은 지문에 없다

- ㉢ 첼로 비유를 실제 악기 연습으로 받는다
- ㉤ 뉴런 연구의 어려움으로 바꾼다

2025년 3월 고1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83.0%

1 Modern brain-scanning techniques such as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have revealed that reading aloud lights up many areas of the brain. **2** There is intense activity in areas associated with pronunciation and hearing the sound of the spoken response, which strengthens the connective structures of your brain cells for more brainpower. **3** This leads to an overall improvement in concentration. **4** Reading aloud is also a good way to develop your public speaking skills because it forces you to read each and every word — something people don't often do when reading quickly, or reading in silence. **5** Children, in particular, should be encouraged to read aloud because the brain is wired for learning through connections that are created by positive stimulation, such as singing, touching, and reading a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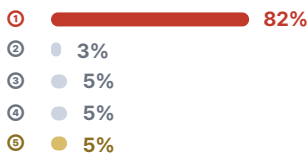
선택지

- ① Reading Aloud: Improving Brainpower and Speaking Skills
- ② Reading Practices: Shortcuts to Academic Achievements
- ③ Improve Your Writing Skills Through Reading Aloud
- ④ How Your Brain Changes When You Read in Silence
- ⑤ Techniques for Faster and More Effective Reading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① · 정답률 83.0% · 최다 오답 ⑤ 5%



직독직해

뇌를 광범위하게 활성화하는 낭독의 효과

- 1**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현대의 뇌 스캐닝 기법은 드러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 2**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뇌세포의 연결 구조를 강화시킨다.
- 3** 이것은 이어진다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 4**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또한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의 대중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단어를 읽게 — 사람들이 빨리 읽거나, 조용히 읽을 때는 자주 하지 않는 일이다.
- 5** 특히 어린이는 소리 내어 읽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뇌가 학습하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 만지기, 소리 내어 읽기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연결을 통해.

어휘

fMRI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낭독할 때 활성화되는 여러 뇌 영역을 보여 준 뇌 스캐닝 기법

connective structures 연결 구조

발음·청각 활동으로 강화되는 뇌세포 간 연결

미끼

역방향

소리 내어 읽기가 논지인데, 오답들은 묵독·속독·쓰기로 대상을 바꾼다.

- ② 학업 성취의 지름길로 넓힌다
- ④ 낭독을 묵독으로 뒤집는다

- ③ 말하기를 쓰기로 바꾼다
- ⑤ 4번의 reading quickly만 떼어 속독으로 옮긴다

2022년 9월 고2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81.0%

1 We have already seen that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2** The reason is simple: every night, our brain consolidates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3**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f the last thirty years: sleep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or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s that the brain accumulated while we were awake. **4** Quite the contrary: while we sleep, our brain remains active;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that replays the important events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선택지

- ① how to get an adequate amount of sleep
- ②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the learning process
- ③ a new method of stimulating engagement in learning
- ④ an effective way to keep your mind alert and active
- ⑤ the side effects of certain medications on brain function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② · 정답률 81.0% · 최다 오답 ③ 6%

- ① 3%
- ② 81%
- ③ 4%
- ④ 6%
- ⑤ 5%

직독직해

수면 중 일어나는 뇌의 기억 통합과 분산 학습

- 1** 우리는 학습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다. 한 과의 전체 내용을 하루에 베퉁치기하기보다 학습을 분산하는 편이 더 낫다.
- 2**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매일 밤, 우리의 뇌는 그날 학습한 것을 공고화한다.
- 3** 이것은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의 하나이다. 잠은 단순한 비활동의 기간이나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뇌가 축적한 노폐물을 수거하는 기간이 아니다.
- 4** 정반대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은 전날 하루 동안 기록한 중요한 사건들을 재생하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기억의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동한다.

어휘

consolidates 공고화하다

낮에 배운 것을 밤에 정착시키는 작용

replays 재생하다

뇌가 전날의 중요한 사건을 다시 돌려보는 과정

cramming 베퉁치기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학습

미끼

지엽어휘

잠이 낮의 학습을 정리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충분한 수면법·학습 참여법·각성 유지법·약물 부작용으로 논점을 바꾼다.

- ① 수면 소재의 실용 갈래. 지문은 잠이 하는 일을 말한다
- ②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은 지문에 없다
- ③ 각성 유지로 옮긴다
- ④ 약물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10 감정을 정보로 오인하다

4편 · 고1 1편 · 고3 3편

개념

감정은 세계에 대한 정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나의 경험이다.

원인을 모른 채 어떤 상태에 놓이면 그 상태를 바깥에서 온 사실로 착각한다.

맑은 날 본 면접의 점수가 흐린 날보다 높아지는 것이 그 결과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판단의 재료로 몰래 들어간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그 오인에 이름을 붙인 것이 2023년 3월 고3이고, 감정이 사실에 없는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을 짚은 것이 2022년 6월 고1이다.

같은 무표정이 관 앞에서는 슬픔으로 수프 앞에서는 허기로 읽히는 실험이 그 기제를 보여 준다(2021년 10월 고3).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생리 반응과 판단까지 달라진다는 것도 같은 축이다(2024년 3월 고3).

가려지는 방식

일반론 1 · 지엽어휘 1 · 역방향 1 · 사례세부 1

미끼가 네 편에 하나씩 흩어진다 — 직감이 더 낫다며 결론을 뒤집거나(2023년 3월 고3), 무표정·장면 어휘를 재조합한다(2021년 10월 고3).

금기어 예시를 주제로 삼거나(2024년 3월 고3) 감정 소재의 상투구를 늘어놓는 오답도 있다(2022년 6월 고1).

이것은 아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단원이 아니라 감정을 감정으로 알아보라는 단원이다.

지문 차례

1	2022년 6월 고1 학평 22번	정서적 추론	86.0%	28
2	2021년 10월 고3 학평 22번	맥락에 따른 정서 해석	81.0%	29
3	2023년 3월 고3 학평 22번	정동 실재론	83.0%	30
4	2024년 3월 고3 학평 22번	언어와 정서의 결합	92.0%	31

같이 볼 것

이 단원은 다른 단원과 잇지 않는다. 없는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

2022년 6월 고1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6.0%

1 Your emotions deserve attention and give you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2** However, they can also sometimes be an unreliable, inaccurate source of information. **3** You may feel a certain way, but that does not mean those feelings are reflections of the truth. **4** You may feel sad and conclude that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when her behavior simply reflects that she's having a bad day. **5** You may feel depressed and decide that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when you did just fine. **6** Your feelings can mislead you into thinking things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s.

선택지

- ㉠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 ㉡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인간관계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 공동체를 위한 선택에는 보상이 따른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6.0% · 최다 오답 ㉢ 6%

- ㉠ 85%
- ㉡ 4%
- ㉢ 6%
- ㉣ 5%
- ㉤ 1%

직독직해

사실과 어긋나는 결론으로 이끄는 감정의 한계

- 1** 당신의 감정은 주목할 만하고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 2**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가끔 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 3**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사실의 반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4** 당신이 슬픔을 느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그녀의 행동이 단지 나타낼 때에도 그녀가 좋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음을.
- 5** 당신은 기분이 우울해서 판단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면접에서 못했다고 당신이 아무 문제 없이 잘했을 때에도.
- 6**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속여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어휘

un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원천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

reflections of the truth 사실의 반영
감정이 실제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미끼

일반론

내 감정이 사실 아닌 결론을 만든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대상을 남으로 돌린다.

- ㉠ 감정의 사실성 문제를 타인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문제로 옮긴다
- ㉡ 친구 예시를 거꾸로 읽는다. 지문은 감정이 판단을 만든다
- ㉣ 4번의 친구가 화났다는 오해를 타인 감정 공감으로 비튼다
- ㉤ 감정과 사실 판단의 논의를 공동체의 보상 문제로 바꾼다

2021년 10월 고3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1.0%

1 A visual scene can set up our emotional response. 2 Suspense is driven by a sense of calm with the anticipation of impending terror. 3 Indeed, anticipation or expectations play a key role in driving our emotions. 4 The Russian silent filmmaker Lev Kuleshov considered such contextual influences. 5 He interspersed shots of an actor exhibiting a neutral expression with shots of a child's coffin or a plate of soup. 6 This same "neutral" expression was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at image preceded it. 7 Thus, the same expression appeared to show sorrow or hunger, depending on the context. 8 Psychological studies of the Kuleshov effect have confirmed the impact of the social context on emotion. 9 For example, if a person smiles at you and then the smile turns into a neutral expression, that person will appear somewhat grumpy or disappointed. 10 Conversely, if a person first looks angry and then the expression turns into a neutral expression, the person looks somewhat pleasant or posi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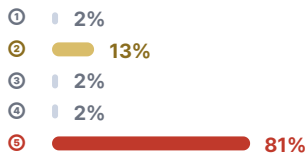
선택지

- ㉠ 영상과 음향의 대비가 긴장감을 조성한다.
- ㉡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 ㉢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영화는 관객의 공감을 얻는다.
- ㉣ 중립적인 태도 유지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선행 장면에 따라서 동일한 시각 정보가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1.0% · 최다 오답 ㉢ 13%



직독직해

선행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 해석

- 1 시각적 장면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2 긴장감은 임박한 공포에 대한 예상을 동반한 평온함에 의해 조성된다.
- 3 실제로, 예상이나 기대는 우리의 감정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러시아의 무성 영화 제작자인 레프 쿨레쇼프는 그러한 맥락적 영향을 고려했다.
- 5 그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배우의 장면 사이에 어린아이의 관 혹은 수프 한 접시와 같은 장면을 배치했다.
- 6 이 똑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은 그 앞에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 7 즉, 그 똑같은 표정이 상황에 따라 슬픔이나 배고픔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 8 쿨레쇼프 효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사회적 상황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증했다.
- 9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그 미소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다소 기분이 언짢거나 실망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 10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 화난 것처럼 보인 다음 그 표정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약간 기분 좋아 보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Visual and social contexts, particularly preceding scenes or events, play a critical role in shaping how we interpret subsequent emotional expressions.

어휘

Kuleshov effect 쿨레쇼프 효과
앞선 장면이 같은 표정의 해석을 바꾸는 현상
anticipation 예상
다음에 올 일에 대한 기대

contextual influences 맥락적 영향
주변 정보가 해석을 좌우하는 작용

미끼 지엽어휘

같은 무표정이 앞 장면에 따라 달리 읽힌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표현·소재·태도로 옮겨 간다.

- ㉠ 무성영화라는 소재를 음향 이야기로 바꾼다
- ㉡ 해석의 문제를 표현의 문제로 옮긴다
- ㉢ 8번의 social context를 시대 상황으로 바꾸고 영화에 붙인다
- ㉣ neutral expression을 처세의 태도로 읽는다

2023년 3월 고3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3.0%

① When you experience affect without knowing the cause, you are more likely to treat affect as information about the world, rather than your experience of the world. ② The psychologist Gerald L. Clore has spent decades performing clever experiments to better understand how people make decisions every day based on gut feelings. ③ This phenomenon is called affective realism, because we experience supposed facts about the world that are created in part by our feelings. ④ For example, people report mor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n sunny days, but only when they are not explicitly asked about the weather. ⑤ When you apply for a job or college or medical school, make sure you interview on a sunny day, because interviewers tend to rate applicants more negatively when it is rainy. ⑥ And the next time a good friend snaps at you, remember affective realism. ⑦ Maybe your friend is irritated with you, but perhaps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or maybe it's just lunchtime. ⑧ The change in her body budget, which she's experiencing as affect, might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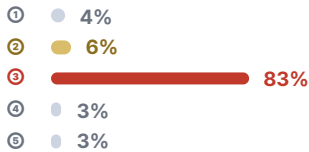
선택지

- ㉠ 직감에 따른 판단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 외부적 환경이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 ㉢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판단한다.
- ㉣ 상대방의 반응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 ㉤ 상대방에 관한 배경지식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3.0% · 최다 오답 ㉡ 6%



직독직해

감정을 세상에 대한 정보로 오인하는 정동 실재론

- ① 원인을 모른 채 감정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정보로 취급할 가능성이 더 크다.
- ② 심리학자 Gerald L. Clore는 사람들이 직감에 근거해 매일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다.
- ③ 이 현상은 '정동 실재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가정된 사실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 ④ 예를 들어, 사람들은 화창한 날에 더 큰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지만, 날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질문받지 '않는' 경우에만 그런다.
- ⑤ 일자리, 대학 혹은 의과 대학에 지원할 때, 반드시 화창한 날에 면접을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비가 오는 날에 지원자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⑥ 그리고 다음에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쏘아붙이면, 정동 실재론을 기억하라.
- ⑦ 친구가 여러분에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난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단지 점심시간이어서 그럴 수 있다.
- ⑧ 그 친구가 감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 예산의 변화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어휘

affective realism 정동 실재론

자기 감정이 만들어낸 것을 세상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

gut feelings 직감

이유를 대기 어려운 몸의 판단

body budget 신체 예산

수면·허기 등이 좌우하는 몸의 자원 상태

미끼

역방향

감정을 세상에 대한 정보로 착각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직감을 옹호하거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축소하고, 상대 반응·배경지식으로 논점을 돌린다.

- ㉠ 2번의 직감에 따른 결정에 '더 좋은 결과'라는 평가를 덧붙인다
- ㉡ 마지막 문장을 뒤집는다. 지문은 나와 무관할 수 있다는 쪽

- ㉢ 날씨가 점수를 바꾼다는 예와 정반대
- ㉤ 배경지식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2024년 3월 고3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92.0%

1 Though it may seem extreme, a multilingual can quite literally feel differently about people, events or things when using one language versus another. **2** The likelihood of being rattled by curse words or taboo words changes across native and second languages. **3**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s not only report feeling different, but their bodies have different physiological reactions and their minds make different emotionally driven decisions across languages. **4** The exact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nd language varies across people. **5** For some, the second language carries more positive connotations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freedom, opportunity, financial well-being and escape from persecution, whereas the native language is associated with poverty and hardship. **6** For others, the opposite is true — the second language is associated with post-immigration challenges, discrimination and lack of close relationships, whereas the native language is associated with family, friends and parental love. **7** And many are somewhere in between, having a mix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each language.

선택지

- ㉠ 다중 언어 환경은 모국어 학습 발달을 지연시킨다.
- ㉡ 모국어 실력이 뛰어날수록 외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다.
- ㉢ 다중 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
- ㉣ 부정적인 어휘가 긍정적인 어휘보다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량이 문화권마다 다르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2.0% · 최다 오답 ㉣ 3%

- ㉠ 2%
- ㉡ 2%
- ㉢ 92%
- ㉣ 3%
- ㉤ 2%

직독직해

사용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과 신체 반응

- 1**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중 언어 사용자는 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 사건 또는 사물에 대해 말 그대로 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 2** 욕설이나 금기어에 당황할 가능성은 모국어와 제2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 3** 다중 언어 사용자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는 서로 다른 생리적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생각은 감정에 이끌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
- 4**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 언어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 5**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2언어가 자유, 기회, 재정적 안정과 박해로부터의 탈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함축을 지니지만, 모국어는 빈곤과 고난과 관련이 있다.
- 6**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가 참이다 — 제2언어는 이민 후의 어려움, 차별,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부재와 관련이 있지만, 모국어는 가족, 친구,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 7**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각 언어와 관련된 혼재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어휘

multilingual 다중 언어 사용자
둘 이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

connotations 함축
단어가 경험과 함께 지니게 된 정서적 색채

physiological reactions 생리적 반응
사용 언어에 따라 몸에서 달라지는 생리적 변화

미끼

사례세부

쓰는 언어에 따라 몸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언어 학습이나 어휘량 문제로 바꾼다.

- ㉠ 학습 지연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언어별 정서 반응을 실력과 습득 속도의 인과로 바꾼다
- ㉢ 2번의 금기어 예시를 주제로 삼는다
- ㉣ 5-6번의 긍정·부정 연상을 어휘량으로 옮긴다

#19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

5편 · 고1 2편 · 고2 1편 · 고3 2편

개념

감정은 느끼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르는 것이다. 덩어리로 겪을 때와 갈라서 볼 때 그다음 대응이 달라진다.

가르는 재료는 어휘다. 어떤 상태를 짜증으로 부르느냐 서운함으로 부르느냐가 조절의 폭을 정한다.

감정이 일어나는 일 자체는 생존 프로그램이라 문화를 넘어 대체로 같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어떻게 읽을지는 배우는 것이다.

감정 어휘와 원인·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은 집단에서 소통과 협력을 돕고, 공감은 상대의 관점과 필요를 이해하는 별도의 능력이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맡는 것

눈금을 촘촘히 하는 일이 조절과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2022년 3월 고1이고, 그 능력이 집단의 갈등을 열린 소통으로 바꾼다는 것이 2025학년도 수능이다.

감정은 생존에 기여해 온 프로그램이고(2024년 9월 고1), 감정 상태 자체는 문화 전반에서 대체로 불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석·명명·표현 맥락은 문화가 가르친다(2022년 6월 고3).

기업이 말하는 공감도 결국 상대의 요구를 구별해 내는 일로 번역된다(2024년 3월 고2).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3 · 지엽어휘 1 · 부분진술 1

역방향 셋이 인과의 화살표를 돌려놓는다 — 이를테면 공감이 감정 어휘를 키운다거나(2025학년도 수능), 감정이 문화를 넘어 똑같이 정의된다고 한다(2022년 6월 고3).

'이름 붙이기: 말이 쉽다'처럼 결론만 뒤집어 놓은 제목도 있다(2022년 3월 고1).

이것은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가르는 능력이다.

지문 차례

1	2022년 3월 고1 학평 24번	감정 입자도	65.0%	33
2	2024년 9월 고1 학평 22번	감정의 적응적 기능	91.0%	34
3	2024년 3월 고2 학평 23번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48.0%	35
4	2022년 6월 고3 모평 23번	감정의 보편성과 문화적 해석	62.0%	36
5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실시) 22번	정서 이해와 집단 기능	93.0%	37

같이 볼 것

→ #11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보편적인 것과 문화가 만든 것을 가르는 물음이 정체성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 #28 몸이 말하는 것 구별의 재료는 말만이 아니다. 몸이 먼저 말한다.

2022년 3월 고1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65.0%

1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2**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a more nuanced vocabulary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3** David explains that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needs and to get the support that we need from others. **4** But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do much, much better at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than those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5** In fact, research shows that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is related to greater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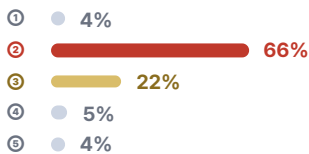
선택지

- ① True Friendship Endures Emotional Arguments
- ② Detailed Labeling of Emotions Is Beneficial
- ③ Labeling Emotions: Easier Said Than Done
- ④ Categorize and Label Tasks for Efficiency
- ⑤ Be Brave and Communicate Your Need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② · 정답률 65.0% · 최다 오답 ③ 22%



직독직해

정서 조절을 좌우하는 감정 명명 능력

- 1**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흔히 감정 입자도라고 불린다.
- 2** Harvard 대학의 심리학자인 Susan David의 말에 의하면, "배우는 것은 감정에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로 이름을 붙이는 법을, 절대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 3** David는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 그리고 지지를 얻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 4**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존재로 사는 중에 겪는 좋은 일들과 궂은일들을 관리하는 일을 훨씬, 훨씬 더 잘한다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 5** 사실, 연구 결과가 보여 준다 감정적인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정서 조절 및 심리 사회적 안녕과.

어휘

emotional granularity 감정 입자도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별해 이름 붙이는가의 정도

emotion regulation 정서 조절
감정의 강도와 지속을 다루는 능력

미끼 역방향

감정에 촘촘히 이름 붙이는 일이 이름다는 결론인데, 최다 오답은 그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돌린다.

- ① 우정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② 이름다는 결론을 어렵다는 쪽으로 돌린다
- ③ label-categorize를 업무 정리로 옮긴다
- ④ 3번의 needs만 떼어 용기 이야기로 바꾼다

2024년 9월 고1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91.0%

1 Our emotions are thought to exist because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2** Fear has helped us avoid dangers, expressing anger helps us scare off threats, and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helps us bond with others. **3**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an emotion is a kind of "program" that, when triggered, directs many of our activities (including attention, perception, memory, movement, expressions, etc.). **4** For example, fear makes us very attentive, narrows our perceptual focus to threatening stimuli, will cause us either to face a situation (fight) or avoid it (flight), and may cause us to remember an experience more acutely (so that we avoid the threat in the future). **5**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s, the specific emotions we possess are thought to exist because they have helped us (as a species) survive challenges within our environment long ago. **6** If they had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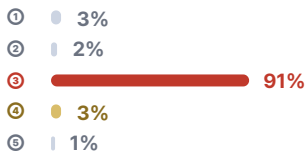
선택지

- ㉠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 ㉡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감정은 다양화되어 왔다.
- ㉢ 감정은 인간이 생존하도록 도와왔기 때문에 존재한다.
- ㉣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
- ㉤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지

정답 ㉢ · 정답률 91.0% · 최다 오답 ㉣ 3%



직독직해

인류 생존에 기여한 감정의 진화적 기능

- 1** 우리의 감정은 여겨진다 존재한다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여해 왔기 때문에 종으로서 우리의 생존에.
- 2**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쫓아내도록 돕고 위협을,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유대하도록 돕는다.
- 3** 진화적 관점에서,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유발될 때 (주의, 지각, 기억, 움직임, 표현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많은 활동을 지시하는.
- 4**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를 매우 주의 깊게 만들고, 우리의 지각의 초점을 좁히고 위협적인 자극으로, 우리로 하여금 둘 중 하나를 하게 하며 상황을 정면으로 대하거나 (싸우거나) 그것을 피하도록 (도피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 경험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위협을 피하도록).
- 5** 구체적인 방식과는 관계없이 그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우리가 소유한 특정한 감정은 여겨진다 존재한다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래 전에 우리의 환경 내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힘든 상황에서 생존하도록 도움을 주어 왔기 때문에.
- 6** 만약 그것들이 우리가 적응하고 ~하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생존하도록,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휘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적 관점

현재의 감정을 생존·적응에 기여한 진화의 산물로 보는 시각

fight or flight 싸움 또는 도피

위험 앞에서 맞서거나 달아나는 반응 체계

미끼

지엽어휘

감정이 생존을 도와 살아남았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과거 경험·문명 발달·기억 비교·두려움 제거라는 다른 갈래로 바꾼다.

㉠ 4번의 remember를 개인의 과거 이야기로 옮긴다

㉡ 진화를 문명사로 바꾼다

㉢ 두려움 예시의 기억만 떼어 간다

㉤ 4번의 fear를 두려움 제거법으로 바꾼다

2024년 3월 고2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48.0%

1 Empathy is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in an employer or employee, although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2** Some businesses stress cognitive empathy, emphasizing the need for leader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and customers when negotiating deals and making decisions. **3** Others stress affective empathy and empathic concern, emphasizing the ability of leaders to gain trust from employees and customers by treating them with real concern and compassion. **4** When some consultants argue that successful companies foster empathy, what that translates to is that companies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5** In other words, an "empathic" company understands the needs and wants of its customers and seeks to fulfill those needs and wants. **6** When some people speak of design with empathy, what that translates to is that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s — the blind, the deaf, the elderly, non-English speakers, the colorblind, and so on — when designing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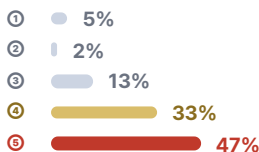
선택지

- ㉠ diverse benefits of good market research
- ㉡ negative factors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 ㉢ difficulties in designing products with empathic concern
- ㉣ efforts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
- ㉤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pathy in busines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48.0% · 최다 오답 ㉢ 33%



직독직해

고객의 구체적 요구 파악으로 번역되는 비즈니스의 공감

- 1**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공감은 고용주나 직원에게 가장 바라는 기술 중 하나로 목록에 종종 오른다.
- 2** 일부 기업은 인지적 공감을 강조하여 리더가 거래를 협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직원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성에 중점을 둔다.
- 3** 다른 기업은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배려를 강조하여, 리더가 직원과 고객을 진정한 관심과 연민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
- 4** 일부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기업은 공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시장조사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다시 말해, '공감적인' 기업은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6** 일부 사람들이 공감을 담은 디자인을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노인, 비영어권 화자, 색맹 등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In the context of business and design, fostering empathy means thoroughly understanding and fulfilling the specific needs of diverse customer populations.

어휘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empathic concern 공감적 배려
관심과 연민으로 대하는 태도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

미끼 부분진술

기업이 말하는 공감이 여러 뜻으로 갈린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그중 하나만 골라 담는다.

- ㉠ 4번의 시장조사만 떼어 낸다
- ㉡ 부정적 요인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디자인 하나만 담고 그것을 어려움으로 바꾼다
- ㉣ 2번의 인지적 공감 하나만 담는다

2022년 6월 고3 모평 23번

주제 · 정답률 62.0%

1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in the words and concepts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for describing emotions, as well a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that draw out the expression of particular emotions. **2** However,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different cultures have different emotions, if we think of emotions as central, neurally implemented states. **3** As for, say, color vision, they just say that,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varies according to culture and that we learn in a particular cultur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emotions. **4** However, the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5** In a sense, we can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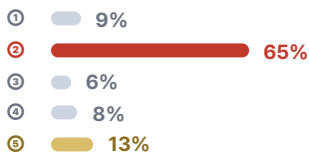
선택지

- ㉠ essential links between emotions and behaviors
- ㉡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
- ㉢ falsely described emotions through global languages
- ㉣ universally defined emotions across academic disciplines
- ㉤ wider influence of cognition on learning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2.0% · 최다 오답 ㉢ 13%



직독직해

보편적인 감정 상태와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해석

- 1** 문화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상당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개념에 정밀로 크고, 때로는 놀랄만한 차이가 있다.
- 2**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심적이고 신경계에서 구현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 3** 예를 들어 색깔의 경우처럼, 그 데이터는 단지 동일한 내적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며 명명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사회적 상황을 특정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 4** 하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다.
- 5**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두뇌에서 실행되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가소적이고,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Emotional states themselves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while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them, and when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them, is learned within a specific culture.

어휘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내적 처리 구조
문화가 달라도 같다고 보는 두뇌의 작동 틀
plastic 가소적인
학습으로 수정될 수 있는

invariant 불변인
문화를 가로질러 달라지지 않는

미끼

역방향

감정 상태는 보편적이고 해석이 문화적이라는 두 겹인데, 오답들은 한 겹만 담거나 방향을 바꾼다.

- ㉠ 5번의 links만 떼어 간다. 그 연결이 가변적이라는 것이 논지다
- ㉡ 문화별 어휘 차이를 오류로 읽는다
- ㉢ 보편성을 학문 간 합의로 바꾼다
- ㉤ 방향을 인지가 문화를 배우는 쪽으로 돌린다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실시) 22번

요지 · 정답률 93.0%

1 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s — to have a diverse emotion vocabulary and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 — is particularly relevant in group settings. **2** Individuals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 are able to express emotions, feelings and moods accurately and thus, may facilitate clear communication between co-workers. **3** Furthermore, they may be more likely to act in ways that accommodate their own needs as well as the needs of others (i.e. cooperate). **4** In a group conflict situation, for example, a member with a strong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will be able to express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and why he feels this way. **5** He also should be able to tak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group members and understand why they are reacting in a certain manner. **6** Appreciation of differences creates an arena for open communication and promotes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and improved group functioning.

선택지

- ㉠ 집단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 ㉡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 ㉢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
- ㉣ 감정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의 기반이 된다.
- ㉤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양에 필수적 요소이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3.0% · 최다 오답 ㉢ 3%

- ㉠ 3%
- ㉡ 91%
- ㉢ 3%
- ㉣ 1%
- ㉤ 1%

직독직해

집단 기능을 좌우하는 감정 이해 능력

- 1**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 다양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고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은 특히 집단 환경에서 중요하다.
- 2**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은 감정, 느낌, 그리고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동료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 3**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행동(즉,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 4** 예를 들어, 집단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구성원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5** 또한 그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을 취하여 그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6** 다름에 대한 이해는 열린 의사소통을 위한 장을 만들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과 집단 기능 향상을 촉진한다.

어휘

emotion vocabulary 감정 어휘
감정을 구별해 표현할 수 있는 말의 목록

take the perspective of ~의 관점을 취하다
상대의 자리에서 상황을 보는 일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건설적인 갈등 해결
열린 소통을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

미끼

역방향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집단의 소통과 협력을 만든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인과와 범위를 바꾼다.

- ㉠ 이해를 조절로 바꾼다
- ㉡ 병렬적으로 제시된 두 능력 사이에 인과를 만든다
- ㉢ 감정 이해의 한 요소인 어휘를 공감의 기반으로 바꾼다
- ㉣ 집단 기능을 개인의 사회성으로 좁힌다

#28 몸이 말하는 것

4편 · 고1 3편 · 고3 1편

개념

몸짓은 낱개로 뜻을 갖지 않는다.

팔짱을 방어로, 미소를 행복으로 읽는 사전식 해독은 신호를 낱개로 떼어 놓기 때문에 틀린다.

뜻은 신호들의 합이 아니라 그것들이 놓인 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몸짓은 말을 대신하지 않고 보완하며, 보완이 지나치면 오히려 말을 덮는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사전식 접근이 왜 무너지는지를 다룬 것이 2020년 6월 고1이고, 보완과 압도 사이의 균형을 말한 것이 2025년 3월 고1이다.

얼굴과 몸이 어긋날 때 사람들은 몸을 따라 판단한다(2020년 4월 고3).

교사가 보내는 비언어 신호가 교실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다(2021년 11월 고1).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2 · 비유매개물 1 · 일반론 1

프랑스어 사전이라는 비유에 걸려 언어 학습을 고르는 오답이 있다(2020년 6월 고1).

주체를 뒤집어 내 몸짓 대신 청중의 몸짓을 보라는 오답도 나온다(2025년 3월 고1).

이것은 아니다

몸짓의 사전을 만드는 단원이 아니라 사전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는 단원이다.

지문 차례

1	2020년 6월 고1 학평 21번	비언어 신호의 맥락 의존성	29.0%	39
2	2021년 11월 고1 학평 20번	비언어 소통과 교실 분위기	90.0%	40
3	2025년 3월 고1 학평 20번	몸짓과 언어의 균형	89.0%	41
4	2020년 4월 고3 학평 24번	감정 판단에서 신체의 우위	71.0%	42

같이 볼 것

→ #19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 몸이 먼저 말한다면, 감정을 가르는 눈금에는 말 이전의 것이 들어간다.

2020년 6월 고1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29.0%

밑줄 친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2**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te-memory, dictionary approach, they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3** Instead,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s and think, "Reserved, angry." **4**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 **5** They use a firm handshake to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6**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i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7** Things tend to fall apart in an inauthentic mess. **8** Your actions seem robotic; your body language signals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9** You end up confusing the very people you're trying to attract because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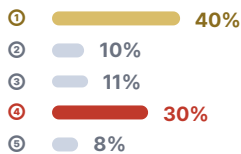
선택지

- ㉠ by learning body language within social context
- ㉡ by comparing body language and French
- ㉢ with a body language expert's help
- ㉣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 ㉤ in a way people learn their native language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29.0% · 최다 오답 ㉠ 40%



직독직해

사전식 해독으로 환원되지 않는 신체 언어

- 1**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신체 언어는 그 이상이다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보다.
- 2** 사람들이 이 기계적 암기식 사전 접근법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그들은 더 큰 그림, 즉 사회적 지각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 3** 대신, 그들은 사람을 본다 팔짱을 낀 그리고 생각한다, "과묵하고, 화가 난".
- 4** 그들은 본다 미소를 그리고 생각한다, "행복하다".
- 5** 그들은 세계 악수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누가 뭘사람인가"를.
- 6** 신체 언어 사전을 읽어서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는 것과 같다 프랑스어 사전을 읽어서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 7** 상황은 진정성 없는 혼란 속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 8** 당신의 행동은 로봇처럼 어색해 보인다; 당신의 신체 언어 신호는 서로 단절된다.
- 9**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끌어들이려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의 신체 언어가 그저 진실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휘

body language 신체 언어
자세·표정·몸짓으로 전달되는 비언어적 신호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지각
타인의 상태와 의도를 읽어내는 과정

미끼

비유매개물

밑줄 친 표현은 사전식으로 읽을 때 무엇을 놓치는가 자리인데, 최다 오답은 그 해법을 미리 넣는다.

- ㉠ 사회적 맥락을 배우면 된다고 뒤집는다. 이 편의 최다 오답이다
- ㉡ 프랑스어 비유를 실제 언어 비교로 받는다
- ㉢ 전문가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사전 비유의 반대편인 모국어 습득을 답으로 삼는다

2021년 11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90.0%

① Some experts estimate that as much as half of what we communicate is done through the way we move our bodies. ②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s you send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s. ③ In general, most students are often closely tuned in to their teacher's body language. ④ For example, when your students first enter the classroom, their initial action is to look for their teacher. ⑤ Think about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for a student when that teacher has a friendly greeting and a welcoming smile. ⑥ Smiling at students — to let them know that you are glad to see them — does not require a great deal of time or effort, but it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assroom climate right from the start of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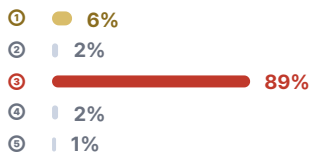
선택지

- ① 교사는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② 수업 시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③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는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에게 다양한 역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⑤ 교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③ · 정답률 90.0% · 최다 오답 ① 6%



직독직해

학생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교사의 비언어적 메시지

- ①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절반 정도나 되는 것이 행해진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
- ② 여러분이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학생들과 여러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선생님의 몸짓 언어를 예민하게 알아차린다.
- ④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생들이 처음 교실에 들어갈 때 그들의 첫 행동은 자신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 ⑤ 그것이 학생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 때 그 선생님이 친근한 인사를 하고 환영하는 미소를 짓는.
- ⑥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것 — 그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여러분이 기쁘다는 것을 그들을 보게 되어서 — 이것은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수업의 바로 그 시작부터 교실 분위기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어휘

nonverbal messages 비언어적 메시지
몸의 움직임으로 전달되는 신호
classroom climate 교실 분위기
수업의 정서적 환경

tuned in to ~에 민감하게 맞춰진
학생들이 교사의 몸짓을 예민하게 읽는 상태

미끼 일반론

교사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논지인데, 오답들은 주체와 대상을 학생·환경으로 옮긴다.

- ① 관찰 대상을 학생끼리로 옮긴다
- ② 비언어를 언어 사용 이야기로 바꾼다
- ④ 5번의 empowering을 다양한 역할 경험 제공으로 비튼다
- ⑥ 6번의 classroom climate를 물리적 환경으로 읽는다

2025년 3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9.0%

1 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 involves more than just knowing when to nod or shake hands. **2** It's about using gestures to complement your spoken messages, adding layers of meaning to your words. **3** Open-handed gestures, for example, can indicate honesty, creating an atmosphere of trust. **4** You invite openness and collaboration when you speak with your palms facing up. **5** This simple yet powerful gesture can make others feel more comfortable and will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6** But be careful of the trap of overgesturing. **7** Too many hand movements can distract from your message, drawing attention away from your words. **8** Imagine a speaker whose hands move quickly like birds, their message lost in the chaos of their gestures. **9** Balance is key. **10** Your gestures should highlight your words, not overshadow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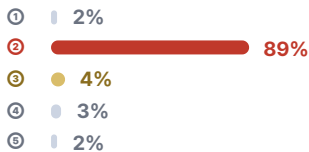
선택지

- ㉠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몸짓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 ㉢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몸짓에 주목해야 한다.
- ㉣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감추기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9.0% · 최다 오답 ㉢ 4%



직독직해

말을 보완하되 압도하지 않는 몸짓의 균형

- 1**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언제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악수를.
- 2** 이는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의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겹의 의미를 더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 3** 예를 들어 손바닥을 보이는 동작은 나타낼 수 있다 정직함을,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 4** 여러분은 개방성과 협력을 끌어낸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이야기할 때.
- 5**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은 상대방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
- 6** 하지만 주의하라 과도한 몸짓의 함정에.
- 7** 너무 많은 손동작은 집중이 안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말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하면서.
- 8** 한 발표자를 상상해 보라 손이 마치 새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자신의 메시지가 몸짓의 혼돈 속에 사라져 버린.
- 9** 균형이 핵심이다.
- 10** 여러분의 몸짓은 강조해야 한다 여러분의 말을, 그것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미끼 역방향

몸짓이 말을 보완하되 덮지 않아야 한다는 균형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주체나 방향을 바꾼다.

- ㉠ 3번의 open-handed를 마음가짐으로 읽는다
- ㉡ 주체를 내가 아닌 청중으로 뒤집는다
- ㉢ 균형의 문제를 솔직함의 문제로 바꾼다
- ㉤ 과잉을 권한다. 지문은 과한 손짓을 경계한다

2020년 4월 고3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71.0%

1 Normally, bodies and faces work together as integrated units. **2** Conveniently, experiments can separate and realign face and body. **3** When face and body express the same emotion, assessments are more accurate. **4** If face and body express different emotions, the body carries more weight than the face in judging emotions. **5** When they conflict, emotion expressed by the body can override and even reverse emotion expressed by the face. **6** A striking example comes from competitive tennis matches. **7** Players typically react strongly to points they win or lose. **8** When a winning body is paired with a losing face, people see the reaction as positive. **9** And vice versa: **10** when a losing body is paired with a winning face, people interpret the reaction as negative. **11** Impressions go with the body when the face and the body conflict. **12** In these cases, the face alone, without the body, even when viewed close up in a photograph, is not reliably judged for positive or negative a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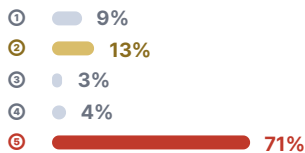
선택지

- ㉠ Never-ending Conflicts Between Body and Face
- ㉡ Use Both Face and Body for Rich Emotional Expression
- ㉢ Reading Facial Expressions: A Key to Avoiding Mistakes
- ㉣ Nonverbal Language Is More Important in Communication
- ㉤ Body vs. Face: Which Do We Rely on in Judging Emotion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1.0% · 최다 오답 ㉣ 13%



직독직해

얼굴보다 몸을 따라가는 감정 판단

- 1** 일반적으로 몸과 얼굴은 통합된 단위로 함께 작동한다.
- 2** 편리하게도 실험에서는 얼굴과 몸을 분리하여 다시 조합할 수 있다.
- 3** 얼굴과 몸이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평가가 더 정확하다.
- 4** 얼굴과 몸이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면, 감정을 판단할 때 몸이 얼굴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닌다.
- 5** 그것들이 충돌할 때, 몸에 의해 표현된 감정은 얼굴에 의해 표현된 감정을 압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 뒤집을 수도 있다.
- 6** 두드러진 예로 경쟁적인 테니스 경기가 있다.
- 7** 선수들은 그들이 획득하거나 잃는 점수에 일반적으로 강하게 반응한다.
- 8** 승리를 나타내는 몸이 패배를 나타내는 얼굴과 짝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 9**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10** 즉, 패배한 몸짓이 승리한 얼굴 표정과 짝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 반응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 11** 얼굴과 몸이 충돌할 때 인상(평가)은 몸을 따라간다.
- 12** 이러한 경우, 심지어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에도 몸이 없이 얼굴만으로는 긍정적 정동인지 부정적 정동인지 확실히 판단되지 않는다.

어휘

integrated units 통합된 단위

override 압도하다

affect 정동

미끼 역방향

얼굴과 몸이 어긋날 때 몸을 따른다는 것이 논지인데, 최다 오답은 첫 문장의 통합에서 멈춘다.

- ㉠ 실험 조건인 충돌을 끝없는 갈등으로 부풀린다
- ㉡ 1번의 통합을 결론으로 착각하게 한다
- ㉢ 얼굴을 답으로 삼는다. 지문은 몸이 이긴다는 쪽
- ㉤ 4번의 몸 우위를 의사소통 전반의 비언어 우위로 넓힌다

#32 이해가 사용으로 이어지려면

4편 · 고2 2편 · 고3 2편

개념

알아본다는 것과 꺼내 쓴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읽으면 이해되는 것은 알아보는 쪽이고, 시험지 앞에서 필요한 것은 꺼내 쓰는 쪽이다.

이 단원은 배운 것을 꺼내 쓰게 하는 조건으로 기억, 비판적 판단, 다양한 맥락의 반복, 학습자 스스로의 유추를 차례로 살핀다.

같은 것을 여러 자리에서 겪고 스스로 비유를 만들어 보아야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되물은 것이 2019년 11월 고2다.

조건 하나는 맥락의 수여서 같은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겪어야 하고(2019년 6월 고3), 또 하나는 학습 주체여서 학생이 비유를 만들거나 교사의 비유를 자기 경험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2021년 3월 고3).

수학도 계산이 아니라 판단과 함께 가르쳐야 쓸 수 있게 된다(2024년 10월 고2).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3 · 지엽어휘 1

역방향 셋이 주체와 순서를 건드린다 — 이를테면 교사가 사례를 주라거나(2021년 3월 고3), 암기가 먼저이고 쉬운 것부터라고 한다(2019년 6월 고3).

사회 현상을 수학으로 보라며 주객을 바꾸거나(2024년 10월 고2), 기억이라는 낱말만 공유한 오답도 있다(2019년 11월 고2).

이것은 아니다

무엇을 배우는가가 아니라 배운 것이 어떤 상태로 남는가를 다룬다.

지문 차례

1	2019년 11월 고2 학평 20번	재인과 인출의 차이	89.0%	44
2	2024년 10월 고2 학평 20번	수학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79.0%	45
3	2019년 6월 고3 모평 20번	다맥락 반복 노출	90.0%	46
4	2021년 3월 고3 학평 20번	학생 생성 유추	84.0%	47

같이 볼 것

→ #84 의식하지 않는 앎 알아보는 것과 꺼내는 것의 구별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2019년 11월 고2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9.0%

① Over the years, memory has been given a bad name. ② It has been associated with rote learning and cramming information into your brain. ③ Educators have said that understanding is the key to learning, but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if you can't remember it? ④ We have all had this experience: we recog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 but can't recall it when we need it. ⑤ For example, how many jokes do you know? ⑥ You've probably heard thousands, but you can only recall about four or five right now. ⑦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four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thousands. ⑧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do you achieve mastery. ⑨ Memory means storing what you have learned; otherwise,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in the first place?

선택지

- ① 창의력 신장을 학습 활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②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③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야 한다.
 ④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농담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⑤ 학습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지

정답 ㉠ · 정답률 89.0% · 최다 오답 ㉢ 4%

- ① 3%
 ㉠ 89%
 ㉢ 4%
 ㉡ 3%
 ㉤ 2%

직독직해

이해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억의 조건

- ① 수년간 기억은 오명을 받아 왔다.
 ② 그것은 기계적 암기 및 정보를 여러분의 뇌 속으로 주입하는 것과 연관되어 왔다.
 ③ 교육자들이 이해가 학습의 핵심이라고 말해 왔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④ 우리는 모두 우리가 정보를 재인하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기억해 내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몇 개의 농담을 알고 있는가?
 ⑥ 여러분은 아마도 수천 개를 들었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략 네다섯 개만 기억해 낼 수 있다.
 ⑦ 네 개의 농담을 인출하는 것과 수천 개를 재인하거나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⑧ 이해는 사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오직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즉시 인출하고 여러분이 기억해 낸 이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숙달에 이른다.
 ⑨ 기억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우리는 왜 배우려고 애쓰는가?

어휘

rote learning 기계적 암기
 의미 없이 반복해 외우는 학습

instantly recall 즉시 인출하다
 필요한 순간에 기억을 꺼내 쓰는 일

미끼 지엽어휘

이해한 것도 꺼내 쓰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반대편 개념·지엽적 낱말·농담 예시·학습 상투구로 논점을 흐린다.

- ㉠ 암기의 반대편을 든다. 지문은 기억을 복권한다
 ㉢ 5번의 농담 예시를 주제로 삼는다

- ㉡ 기억이라는 낱말만 공유한다
 ㉤ 지문에 없는 학습 상투구

2024년 10월 고2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79.0%

1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means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about societal issues on which mathematics has bearing so a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2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mirroring real-world problems requires innovative ways of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s. 3 Navigating our world means being able to quantify, measure, estimate, classify, compare, find patterns, conjecture, justify, prove, and generalize within critical thinking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4 Therefore, making decisions, even qualitatively, is not possible without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5 Thus, teaching mathematics should be done in interaction with critical thinking along with a decision-making process. 6 They can be developed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so that there is no excuse to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to develop them.

선택지

- ㉠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 결정 능력이 수학적 맥락에서 함양되어야 한다.
- ㉡ 객관적 사고를 위해 사회 현상을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 ㉢ 수학 수업의 과제는 실생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되어야 한다.
- ㉣ 의사 결정 시 정량적인 방법에 치중해 정성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범교과적인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9.0% · 최다 오답 ㉢ 12%

- ㉠ 78%
- ㉡ 12%
- ㉢ 4%
- ㉣ 2%
- ㉤ 4%

직독직해

비판적 사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수학 교육

- 1 수학적 문해력이 있다는 것은 수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실생활 문제들을 반영하는 학제 간 접근법을 통해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수학적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요구한다.
- 3 우리의 세계를 탐색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 안에서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수량화하고, 측정하고, 추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을 찾고, 추측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수학과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질적인 경우여라도 가능하지 않다.
- 5 따라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6 그것들은 수학적 맥락 안에서 발전될 수 있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휘

mathematically literate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는
수학이 걸린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
conjecture 추측하다
패턴을 근거로 가설을 세움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학제 간 접근법
실제 문제를 여러 분야를 엮어 다루는 방식

미끼 역방향

수학 교육에 비판적 사고와 의사 결정을 함께 넣으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그 관계를 뒤집거나 지엽적 낱말만 떼어 낸다.

- ㉠ 주객을 바꾼다. 지문은 수학에 비판적 사고를 넣으라는 쪽
- ㉡ 2번의 실생활 문제만 떼어 낸다
- ㉢ 4번의 qualitatively만 붙든다
- ㉣ 2번의 interdisciplinary만 떼어 낸다

2019년 6월 고3 모평 20번

주장 · 정답률 90.0%

1 Learning a certain concept such as "molecules" requires more than just a single exposure to the idea. **2** If a student is going to remember a science concept, he or she should experience it multiple times and in various contexts. **3** That is one of the strengths of the learning cycle: the students have direct experience with the concept, then they talk about it, and then they have even more direct experience. **4** Reading, watching videos, and listening to others' thoughts contribute to a more soli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5** This suggests more than repetition. **6** Each event allows the student to examine the concep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7** Ultimately this will lead to a substantive, useful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and nuances of the concept.

선택지

- ㉠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접해야 한다.
- ㉡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위해 기본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 과학 원리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가르쳐야 한다.
- ㉤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0.0% · 최다 오답 ㉤ 4%

- ㉠  89%
- ㉡  2%
- ㉢  3%
- ㉣  2%
- ㉤  4%

직독직해

다양한 맥락의 반복 경험이 만드는 개념 이해

- 1** '분자'와 같은 어떤 하나의 개념을 배우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단 한 번의 노출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 2** 한 학생이 과학 개념을 기억하려면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 3** 그것이 학습 순환의 장점 중 하나인데, 학생들은 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
- 4** 읽고, 비디오를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은 더 확실한 개념의 이해에 기여한다.
- 5** 이것은 반복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
- 6** 각각의 경우는 학생이 다른 관점에서 개념을 검토하도록 한다.
- 7** 궁극적으로 이것은 개념의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어휘

single exposure 단 한 번의 노출
개념을 한 번만 접하는 것
nuances 미묘한 차이
개념이 맥락마다 달리 드러나는 점

learning cycle 학습 순환
직접 경험·대화·재경험을 반복하는 구조

미끼

역방향

같은 개념을 여러 맥락에서 겪어야 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순서나 수단의 문제로 바꾼다.

- ㉠ 반복을 암기로 바꾼다. 지문은 반복 이상이라고 한다
- ㉡ 기본 개념 숙지만 내세워 다양한 맥락을 지운다
- ㉢ 맥락의 다양함을 난이도 순서로 옮긴다
- ㉤ 4번의 watching videos만 떼어 낸다

2021년 3월 고3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4.0%

1 Good teachers know that learning occurs when students compare what they already know with the new ideas presented by the teacher or textbook. **2** It is the students who decide whether or not to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therefore, teaching should be student centered rather than teacher centered. **3** This means that stu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making and interpreting analogies. **4** If we believe that analogy use is an effective way to help students think and learn, then it makes sense to help students generate their own analogies or reconstruct the teacher's analogies to fit in with their own experiences.

선택지

- ① 학습 내용은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 ③ 교사는 수업 중 학생과 상호 작용을 많이 해야 한다.
- ④ 교육 활동에서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 ⑤ 유추를 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⑤ · 정답률 84.0% · 최다 오답 ③ 5%

- ① 5%
- ② 3%
- ③ 4%
- ④ 5%
- ⑤ 83%

직독직해

학생이 직접 유추를 만드는 학생 중심 수업

- 1** 훌륭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교사나 교과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교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2** 자신의 개념을 재구성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교사 중심보다는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 3** 이것은 학생들이 유추를 만들고 해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만약 유추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도록 돕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학생들이 그들 자신만의 유추를 만들어 내거나 교사의 유추를 그들 자신의 경험에 맞게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이 이치에 맞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Since learning occurs when students reconstruct their own conceptions, teaching should be student-centered, actively involving them in creating and interpreting analogies to connect new ideas with their own experiences.

어휘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개념을 재구성하다

기존 지식과 새 지식을 견주어 스스로 다시 짜는 일

analogy 유추

익숙한 것에 빗대어 새 개념을 이해하는 장치

student centered 학생 중심의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두는 방식

미끼

역방향

재구성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학생이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주체를 교사로 되돌리거나 난이도와 이론·실습 비중이라는 다른 쟁점을 내세운다.

- ① 난이도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② 사례를 주는 주체를 교사로 되돌린다
- ③ 학생 중심을 교사의 노력으로 바꾼다
- ④ 3·4번의 유추 활동을 이론보다 실습 우선으로 넓힌다

#101 냄새로 하는 소통

생물은 인간에게 잘 감지되지 않는 냄새와 화학 신호를 언어처럼 사용해 상대를 부르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2025년 6월 고2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64.0%

1 All of the restaurants are using carefully chosen words to evoke vivid mental images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s in order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to their particular establishment. **2** Just like the restaurants, nature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s. **3** In a fashion similar to the restaurants' financial dependence upon drawing in many customers, the restaurateurs of the natural world (i.e., flowers)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to sample their offerings. **4** In the natural world, there are no neon signs or flashy words in which to market a potential meal to hungry animals. **5** These restaurants that I am referring to are the world's flowers, and the potential guests are the host of organisms that visit flowers to obtain nectar and other valuable resources. **6**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they advertise their offerings just as effectively using the language of smell.

선택지

- ㉠ 음식점은 자연의 색과 향기로 잠재적 고객을 유혹한다.
- ㉡ 자연 세계에서 꽃은 다양한 종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라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
- ㉣ 음식점과 꽃은 주변 환경에 생동감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 ㉤ 꽃은 동물의 도움으로 생태계 내에서 번식을 이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4.0% · 최다 오답 ㉠ 29%

- ㉠ 29%
- ㉡ 1%
- ㉢ 65%
- ㉣ 4%
- ㉤ 1%

직독직해

냄새라는 화학적 언어로 방문 생물을 부르는 꽃

- 1** 모든 음식점은 잠재적 고객을 그들의 특정 가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의 생생한 마음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음식점들과 같이, 자연도 자신만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
- 3**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음식점의 재정적 의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 세계의 식당 주인들(즉, 꽃들)도 그들의 제공물을 맛볼 수 있도록 잠재적 식사 손님들을 유혹해야 한다.
- 4** 자연 세계에는, 배고픈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식사를 광고할 수 있는 네온사인이나 화려한 말이 없다.
- 5**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식당들은 세계의 꽃들이며, 잠재적인 손님들은 꿀과 다른 귀중한 자원을 얻기 위해 꽃을 방문하는 여러 생물들이다.
- 6** 문자 언어나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제공물을 광고한다.

어휘

restaurateurs of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의 식당 주인
손님을 끌어야 하는 꽃을 가리키는 비유
the language of smell 냄새라는 언어
네온사인 대신 꽃이 쓰는 광고 수단

nectar 꿀
방문객이 얻어가는 보상

미끼

비유매개물

음식점은 비유이고 주제는 꽃이 냄새로 광고한다는 것인데, 최다 오답은 그 비유를 주어로 삼는다.

- ㉠ 비유의 수레인 음식점을 주어 자리에 놓는다
- ㉡ 생태적 기능으로 넓힌다
- ㉢ 비유를 두 대상의 공통점 찾기로 바꾼다
- ㉣ 꽃 방문을 지문에 없는 생태적 결과로 확장한다

2022년 3월 고3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5.0%

1 Just imagine that we have invented special glasses that give us the power to see the odorous world the way that other organisms perceive it. **2** Put your pair on and walk outside for just a moment. **3** As the bright sunlight hits our eyes, we would encounter a world far different from what we would normally expect. **4** The air is full of molecules carried by breezes. **5** Chemical signals would flood our eyes just as surely as sounds overwhelm our ears at a cocktail party. **6** Stare at any plant and you would see compounds being released into the air from leaves, bark, and roots. **7** A squirrel in a tree exudes carbon dioxide and other compounds with each breath. **8** Glance along its brown body and notice that specific points (scent glands) appear to be slowly releasing chemical signals. **9** If we could translate these signals into language, we would see phrases, sentences, statements, songs, and other messages waiting to be intercepted and interpreted.

선택지

- ㉠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기체가 매우 많다.
- ㉡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 신호로 가득 차 있다.
- ㉢ 동물과 식물의 감각 기관은 외부 자극에 일정하게 반응한다.
- ㉣ 동물과 식물은 화학 물질의 발산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 ㉤ 시각적 인식이 다른 모든 감각에 의한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5.0% · 최다 오답 ㉠ 5%

- ㉠ ● 5%
- ㉡ ● 84%
- ㉢ ● 4%
- ㉣ ● 4%
- ㉤ ● 4%

직독직해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화학 신호의 세계

- 1** 우리가 다른 유기체가 지각하는 방식으로 냄새의 세계를 보는 능력을 주는 특수 안경을 발명했다고 상상해 보라.
- 2** 여러분의 안경을 끼고 잠깐 밖을 거닐어 보라.
- 3** 밝은 햇빛이 우리의 눈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 기대하는 바와 아주 다른 세상과 마주칠 것이다.
- 4** 대기는 미풍에 의해 운반되는 분자로 가득하다.
- 5** 화학 신호들이 카페일파티에서 소리가 우리의 귀를 압도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물밀듯이 밀려들 것이다.
- 6** 어떤 식물을 응시하더라도 나뭇잎, 나무껍질, 뿌리로부터 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7** 나무에 있는 다람쥐는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 탄소와 다른 화합물을 발산한다.
- 8** 그것의 갈색 몸을 죽 훑어보며 특정 지점(취선)이 서서히 화학 신호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라.
- 9** 만약 우리가 이 신호들을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 문장, 진술, 노래,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가로채여(포착되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것이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The world is saturated with chemical signals released by plants and animals, a stream of messages as dense as the sounds at a cocktail party, which human perception simply cannot register.

어휘

odorous world 냄새의 세계
다른 생물이 지각하는 화학적 환경
scent glands 취선
신호를 천천히 내보내는 특정 부위

chemical signals 화학 신호
여러 생물이 방출해 전달하는 화학적 메시지

미끼 비유매개물

세상이 화학 신호로 가득한데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비유-감각 기관-신호의 기능을 논지와 다르게 읽는다.

- ㉠ 특수 안경 비유의 보기 층위에 머문다
- ㉡ 신호를 감각 기관의 반응 이야기로 바꾼다
- ㉢ 신호의 기능을 방어로 좁힌다
- ㉣ 안경이라는 비유를 시각 우위로 읽는다

#112 눈은 왜 그렇게 생겼는가

눈의 형태가 생존과 협력에 제공한 적응적 이점

2022년 7월 고3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76.0%

1 On an antelope's skull, the eye sockets are situated on the side of the head. **2** This is because this animal spends a lot of its time with its head bent down to eat a low-nutrient food: grass. **3** While the animal is busy grazing, there will be predators out stalking for their food, so the antelope needs the greatest possible range of vision so that it has the maximum chance of seeing its predator and making an escape. **4** With the eye sockets at the back of the head and on the side, it can see nearly 360° around itself. **5** The eye of the antelope is also at the back of its head, giving it a long nose. **6** If the eyes were at the front of the skull, vision would be obscured by long grass, so its long nose also gives an evolutionary adva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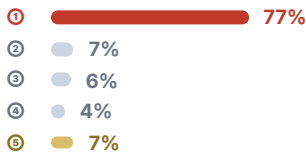
선택지

- ㉠ Better Predator Detection: Eyes' Location Matters!
- ㉡ Escaping as a Primary Defense Tactic in a Field
- ㉢ Closer Eyes, Less Accurate Distance Perception
- ㉣ A Win-Win Survival Strategy for Prey and Predator
- ㉤ Why Do Animals Have Longer Noses than Human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6.0% · 최다 오답 ㉤ 7%



직독직해

포식자 탐지를 극대화하는 영양의 눈과 코 구조

- 1** 영양의 두개골에서, 안와는 머리의 측면에 위치한다.
- 2** 이것은 이 동물이 영양가가 낮은 음식인 풀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 3** 이 동물이 풀을 뜯느라 바쁜 동안, 외부에는 먹이를 찾아 몰래 접근하는 포식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양은 그것의 포식자를 알아차리고 도망갈 수 있는 최대 가능성을 가지도록 가능한 최대의 시야 범위가 필요하다.
- 4** 안와가 머리의 후면부와 측면부에 있어, 그것은 자기 주변을 거의 360도 볼 수 있다.
- 5** 또한 영양의 눈은 머리 후면부에 있어, 영양은 긴 코를 갖게 된다.
- 6** 만약 눈이 두개골의 앞쪽에 있다면, 긴 풀에 시야가 가려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긴 코 또한 진화적 이점을 제공한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The unique placement of an antelope's eyes and its long nose provide evolutionary advantages by maximizing its field of vision to detect predators while grazing.

어휘

eye sockets 안와
눈이 자리 잡은 두개골의 구멍

stalking 몰래 접근하는
먹이를 노리며 다가가는

range of vision 시야 범위
포식자를 발견할 확률을 좌우하는 시야의 폭

미끼 부분진술

눈의 위치와 긴 코가 함께 탐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하나만 떼어 낸다.

- ㉠ 3번의 escape는 탐지 뒤의 결과일 뿐 주제가 아니다
- ㉡ 눈만 떼어 내고 거리 지각으로 바꾼다
- ㉢ 포식자 쪽 이득을 만들어 낸다
- ㉣ 코만 떼어 내고 인간과의 비교로 바꾼다

2025년 3월 고3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84.0%

1 In fact, humans are known to have the largest and most visible sclera — the "whites" of the eyes — of any species. **2** This fact intrigues scientists, because it would seem actually to be a considerable obstacle: imagine, for example, the classic war movie scene where the soldier dresses in camouflage and paints his face with green and brown color — but can do nothing about his noticeably white sclera, beaming bright against the jungle. **3** There must be some reason humans developed it, despite its obvious costs. **4** In fact, the advantage of visible sclera — so goes the "cooperative eye hypothesis" — is precisely that it enables humans to see clearly, and from a distance, which direction other humans are looking. **5** Michael Tomasello showed in a 2007 study that chimpanzees, gorillas, and bonobos — our nearest cousins — follow the direction of each other's heads, whereas human infants follow the direction of each other's eyes. **6** So the value of looking someone in the eye may in fact be something uniquely hu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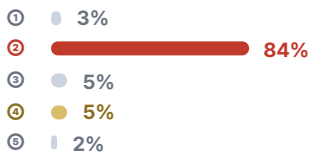
선택지

- ㉠ Adaptive Strategies for Animals with Poor Vision
- ㉡ The Uniqueness of Human's Visible Sclera
- ㉢ The Human Eye: A Window to Our Soul
- ㉣ Why Human Eyes Evolved Various Colors
- ㉤ How Non-human Species Use Sclera in Communication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4.0% · 최다 오답 ㉢ 5%



직독직해

협력을 위해 진화한 인간의 두드러진 공막

- 1** 실제로 인간은 모든 종 중 가장 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공막, 즉 눈의 '흰자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이 사실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돋우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방해물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병사가 위장복을 입고 그의 얼굴을 녹색과 갈색으로 칠하지만, 정글과 대비되어 밝게 빛나는 그의 눈에 띄게 하얀 공막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전적인 전쟁 영화 장면을 상상해 보라.
- 3** 그것의 명백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발달시킨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다.
- 4** 실제로, '협력적 눈 가설'이 말하듯이, 눈에 잘 띄는 공막의 이점은 바로 그것이 인간이 분명하게, 그리고 멀리서, 다른 인간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5** Michael Tomasello는 한 2007년의 연구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인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보노보는 서로의 '머리' 방향을 따라가는데, 반면 인간 유아들은 서로의 '눈'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6** 그러므로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의 가치는 사실 인간에게 고유한 것일 수도 있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The evolution of highly visible white scleras in humans serves the unique function of allowing individuals to easily detect and follow the direction of others' gaze, facilitating cooperation.

어휘

sclera 공막
눈의 흰자위

camouflage 위장
드러나는 흰자위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는 은폐

cooperative eye hypothesis 협력적 눈 가설
시선 방향을 알리기 위해 흰자위가 진화했다는 설명

미끼 역방향

눈에 띄는 흰자위가 인간에게 특히 두드러지고 협력에 쓰인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대상을 옮긴다.

- ㉠ 시력 나쁜 동물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6번의 눈을 바라보는 일을 상투구로 받는다
- ㉢ 흰자위를 눈동자 색 이야기로 바꾼다
- ㉣ 침팬지 예시를 주어로 놓는다

#38 몸이 마음을 만든다

안면 피드백·보상 회로 2편만 신체→정서 축

2020년 6월 고1 학평 24번

제목 · 정답률 66.0%

1 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makes you feel happy and produces feel-good chemicals in your brain. **2** Force your face to smile even when you are stressed or feel unhappy. **3** The facial muscular pattern produced by the smile is linked to all the "happy networks" in your brain and will in turn naturally calm you down and change your brain chemistry by releasing the same feel-good chemicals. **4** Researchers studied the effects of a genuine and forced smile on individuals during a stressful event. **5** The researchers had participants perform stressful tasks while not smiling, smiling, or holding chopsticks crossways in their mouths (to force the face to form a smile). **6**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miling, forced or genuine, during stressful events reduced the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 body and lowered heart rate levels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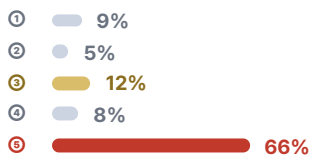
선택지

- ㉠ Causes and Effects of Stressful Events
- ㉡ Personal Signs and Patterns of Stress
- ㉢ How Body and Brain React to Stress
- ㉣ Stress: Necessary Evil for Happiness
- ㉤ Do Faked Smiles Also Help Reduce Stres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6.0% · 최다 오답 ㉢ 12%



직독직해

억지 미소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안면 피드백 효과

- 1** 여러분이 미소 짓게 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의 뇌에서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 2** 당신의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짓게 해라 심지어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 3** 미소에 의해 만들어진 안면 근육 양상은 연결되어 있다 뇌의 모든 "행복 연결망"에 그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뇌 화학을 바꿀 것이다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함으로써.
- 4** 연구자들은 개인들에게 진정한 미소와 억지 미소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동안.
- 5**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과업을 수행하게 했다 미소 짓지 않거나, 미소 짓거나, 또는 입에 젓가락을 가로로 물고 있는 동안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
- 6**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미소가, 억지로 지은 것이든 진정한 것이든,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동안 몸의 스트레스 반응 강도를 줄였고 심박수 수준을 낮췄다는 것을 스트레스에서 회복한 후에.

어휘

facial muscular pattern 안면 근육 양상
미소가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의 배치
feel-good chemicals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
뇌에서 분비되는 긍정 정서 물질

stress response 스트레스 반응
위험 상황에서 몸이 보이는 반응

미끼

부분진술

억지로 지은 미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미소를 빼고 스트레스만 남긴다.

- ㉠ 스트레스 자체를 주제로 삼는다. 미소가 논지다
- ㉡ 스트레스 신호와 유형으로 옮긴다
- ㉢ 기제만 말하고 억지 미소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뻔다
- ㉣ 지문에 없는 상투구

2020년 9월 고2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5.0%

1 The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s research explains that keeping what she calls the "effort-driven rewards circuit" well engaged helps you deal with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or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2** Doing hands-on activities that produce results you can see and touch — such as knitting a scarf, cooking from scratch, or tending a garden — fuels the reward circuit so that it functions optimally. **3** She argues that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may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 physical activity. **4** When we work with our hands, it increases the release of the neurochemicals dopamine and serotonin, both responsible for generating positive emotions. **5** She also explains that working with our hands gives us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 and more connection to the world around us. **6** All of which contributes to a reduction in stress and anxiety and builds resilience against the onset of depression.

선택지

- ㉠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게 쉽게 전이된다.
- ㉡ 감정 조절은 대인 관계 능력의 핵심 요소이다.
- ㉢ 수작업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 과도한 신체활동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 ㉤ 취미 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5.0% · 최다 오답 ㉡ 5%

- ㉠ 5%
- ㉡ 5%
- ㉢ 86%
- ㉣ 2%
- ㉤ 2%

직독직해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수작업의 효과

- 1** 심리학 교수인 Kelly Lambert 박사의 연구는 그녀가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잘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 주변의 환경에서나 당신 삶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도전들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 2** 목도리를 뜨거나 처음부터 직접 요리하거나 정원을 손질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보상 회로가 최적으로 활동하도록 활성화시킨다.
- 3** 그녀는 문서로 기록된 미국인들의 우울증 증가는 목적이 있는 신체 활동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 4**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신경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 5** 그녀는 또한 우리의 손으로 작업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더 큰 통제감과 우리 주변의 세계와의 더 많은 연결을 준다고 설명한다.
- 6**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에 기여하고 우울증 발생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워준다.

어휘

effort-driven rewards circuit 노력 주도 보상 회로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 때 작동하는 뇌의 보상 체계
resilience 회복탄력성
우울의 발병에 저항하는 심리적 힘

dopamine and serotonin 도파민과 세로토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신경화학물질

미끼 사례세부

수작업이 보상 회로를 활성화해 정신 건강을 돕는다는 것이 논지다. 오답은 일반론·부작용·사회적 효과다.

- ㉠ 4번의 신경화학물질을 감정 전이 이야기로 바꾼다
- ㉡ 1번의 emotional life를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로 확대한다
- ㉢ 신경화학물질 증가를 호르몬 불균형으로 뒤집는다
- ㉣ 수작업 사례를 지문에 없는 사람 만남으로 바꾼다

#84 의식하지 않는 얀

의식적 설명이나 회상 없이도 이루어지는 판단과 인식

2024년 10월 고1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4.0%

1 In his Cornell laboratory, David Dunning conducted experimental tests of eyewitness testimony and found evidence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can actually be a sign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2**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3** Sometimes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what our mind is telling us. **4** That very first impression can also be more accurate about the world than the deliberativ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5** In his book Blink, Malcolm Gladwell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that demonstrate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compared to logical step-by-step justifications for a dec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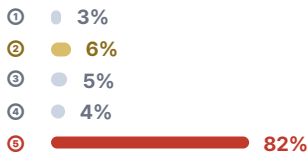
선택지

- ㉠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판단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 ㉡ 인간의 표정은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
- ㉢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 ㉣ 목격자 진술은 사건 직후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더 명확해진다.
- ㉤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정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4.0% · 최다 오답 ㉡ 6%



직독직해

속고보다 정확한 무의식적 첫 반응

- 1** David Dunning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그는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고 증거를 발견했다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한 속고와 선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실제로는 '부정확한' 식별의 징후일 수 있다는.
- 2**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얼굴이 그냥 내 눈에 확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 그들은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다.
- 3** 때때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 4** 바로 그 첫인상이 또한 더 정확할 수 있다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서사보다 세상에 대해.
- 5**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Blink'에서,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를 기술한다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단계적 정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 추측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어휘

deliberation 속고

단계를 밟아 이유를 따지는 의식적 사고

first impression 첫인상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최초 반응

미끼

통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첫 반응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 논지인데, ㉠·㉢은 속고와 정보 쪽으로 되돌린다.

㉠ 실험이 뒤집은 통념 그 자체

㉢ 속고를 정보 수집으로 바꾼다

㉡ 얼굴이라는 소재만 가져간다

㉣ 시간 문제로 바꾼다. 지문은 첫 반응이라는 쪽

2025년 3월 고2 학평 23번

주제 · 정답률 77.0%

1 If the brain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 and name, why do we still end up remembering one and not the other? **2** This is because the brain has something of a two-tier memory system at work when it comes to retrieving memories, and this gives rise to a common yet infuriating sensation: recognising someone, but not being able to remember how or why, or what their name is. **3** This happens because the brain differentiates between familiarity and recall. **4** To clarify, familiarity (or recognition) is when you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and you know you've done so before. **5** But beyond that, you've got nothing; all you can say is this person/thing is already in your memories. **6** Recall is when you can access the original memory of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recognition is just flagging up the fact that the memory ex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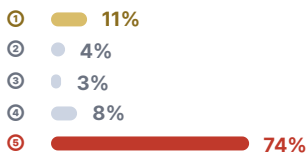
선택지

- ㉠ process of recalling details from partial memories
- ㉡ impact of emotional responses on memory retrieval patterns
- ㉢ dangers of memory loss regarding face and name recognition
- ㉣ ways to manage the difficulty of recognising faces and names
- ㉤ distinction between recall and familiarity in the memory system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7.0% · 최다 오답 ㉠ 11%



직독직해

친숙성과 회상을 나누어 처리하는 기억 체계

- 1** 뇌가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 2** 이는 기억을 인출할 때 뇌에서 일종의 이중 기억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누군가를 알아보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또는 왜 아는지, 혹은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혼하지만 몹시 답답한 느낌이 생긴다.
- 3** 이는 뇌가 친숙성과 회상을 구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4** 명확하게 하자면, 친숙성(또는 재인)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마주쳤고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이다.
- 5**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당신이 아는 것이 없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사물이 이미 기억 속에 있다는 것뿐이다.
- 6** 회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며, 재인은 단지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표시해 줄 뿐이다.

어휘

familiarity 친숙성

전에 마주친 적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기억 신호

two-tier memory system 이중 기억 체계

친숙성과 회상을 나누어 처리하는 구조

recall 회상

어떻게 왜 아는지 원래 기억에 접근하는 일

미끼

지엽어휘

친숙성과 회상이 다른 체계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낱말만 가져가거나 실용 갈래로 샌다.

㉠ recall이라는 낱말만 가져가 부분 기억 이야기로 바꾼다

㉡ 감정은 지문에 없다

㉢ 두 체계의 차이를 기억 상실의 위험으로 바꾼다

㉣ 소재만 같은 실용 갈래로 샌다

2 부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고칠 것인가.

이 책에서 가장 두꺼운 부다. 예순아홉 편이 들어간다.

지문이 겹쳐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이라는 물음이 실제로 그만큼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실패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가, 걱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습관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갈래들은 자기 판단, 자원 배분, 정서 조절, 습관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 조절을 이룬다는 데서 만난다.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가에서 시작해(#3), 그것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것들로 간다(#16 #36 #39 #40).

그다음이 경계선이다 —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17), 안전을 고르면 무엇이 닫히는가(#25).

마지막이 실행으로, 작게 시작하는 법(#18)과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방향(#21)을 다룬다.

역방향이 마흔둘로 코퍼스 평균 47%를 크게 웃돈다 — 자기 조절 지문의 응답은 거의 언제나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3	인지 자원의 배분	8편	#40	걱정은 통제되는가	4편
#16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7편	#18	작게 시작하기	5편
#17	자기 한계를 어디에 긋는가	6편	#21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4편
#25	안전을 택할 때 잃는 것	5편	#35	성공을 무엇으로 재는가	3편
#36	성과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	3편	#41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	3편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5편			

짜지문 #64 목표를 넘어서는 것 · #65 노력은 꼭 힘들어야 하는가 · #68 고집과 저항 · #83 말이 행동을 만든다 · #93 혼자 있는 시간의 기능 · #95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가 · #80 자기 확신의 함정 · #996 닫히면 무엇을 잃는가

#3 인지 자원의 배분

8편 · 고1 3편 · 고2 2편 · 고3 3편

개념

주의와 에너지는 하루 동안 고르게 유지되지 않으며, 수면·기기 사용·일정 배치에 따라 수행 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디에 놓느냐가 된다.

자원을 아끼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나누어 두면 확인하는 데 새고, 리듬 없이 쓰면 걸러내는 능력 자체가 무너진다.

잠은 단순히 뇌가 꺼져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학습과 기억을 돕고 자원을 쓰는 능력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잠이 꺼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2022년 3월 고1이고, 그 잠을 줄이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2020년 10월 고3이다.

배치의 원칙은 정점에 어려운 일을 놓는 것이며(2023년 3월 고1·2022년 11월 고2), 반응적 업무보다 창의적 업무를 앞세우는 것이다(2021년 6월 고3).

새는 자리를 막는 방법도 나온다 — 달력을 하나로 모으고(2023년 6월 고1), 기기 사용에 리듬을 주고(2021년 11월 고2), 시간을 도전적으로 제한한다(2020년 4월 고3).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4 · 지엽어휘 2 · 비유매개물 2

역방향 넷이 배치의 원칙을 평평하게 만든다 — 이를테면 일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거나(2023년 3월 고1), 충분한 시간 이 창의성을 키운다고 한다(2020년 4월 고3).

에너지와 식단 비유에 걸려 아침 식사나 영양 정보를 고르는 오답도 있다(2022년 11월 고2·2021년 11월 고2).

이것은 아니다

시간 관리의 요령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지문 차례

1	2022년 3월 고1 학평 22번	수면의 능동적 기능	91.0%	58
2	2023년 3월 고1 학평 20번	생체 리듬과 과업 배치	87.0%	59
3	2023년 6월 고1 학평 20번	단일 시스템과 인지 부하	87.0%	60
4	2021년 11월 고2 학평 21번	주의 필터링과 사용 리듬	84.0%	61
5	2022년 11월 고2 학평 21번	에너지 수준과 과업 배치	65.0%	62
6	2020년 4월 고3 학평 22번	파킨슨의 법칙	90.0%	63
7	2020년 10월 고3 학평 21번	수면 부족의 생산성 비용	58.0%	64
8	2021년 6월 고3 모평 21번	창의 작업 우선 배치	56.0%	65

같이 볼 것

→ #43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대로 뇌를 바꾸는 입력이 된다.

→ #95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가 같은 물음을 시간 쪽에서 본 것. 시간을 어떻게 잘라 보느냐가 배치를 바꾼다.

2022년 3월 고1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91.0%

1 Many people view sleep as merely a "down time" when their brain shuts off and their body rests. **2** In a rush to meet work, school, family, or household responsibilities, people cut back on their sleep, thinking it won't be a problem, because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seem much more important. **3** But research reveals that a number of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 help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people to function at their best. **4** While you sleep, your brain is hard at work forming the pathways necessary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ies and new insights. **5** Without enough sleep, you can't focus and pay attention or respond quickly. **6** A lack of sleep may even cause mood problems. **7** In addition, growing evidence shows that a continuous lack of sleep increases the risk for developing serious diseases.

선택지

- ㉠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
- ㉡ 업무량이 증가하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증가한다.
- ㉢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
- ㉣ 불면증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꿈의 내용은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의 경험을 반영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1.0% · 최다 오답 ㉢ 3%

- ㉠ 91%
- ㉡ 3%
- ㉢ 1%
- ㉣ 2%
- ㉤ 2%

직독직해

건강과 최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의 역할

- 1** 많은 사람이 수면을 그저 '쉬는 시간'으로 본다 그들의 뇌가 멈추고 신체가 쉬는.
- 2** 서두르는 와중에 일, 학교, 가족, 또는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줄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다른 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 3** 하지만 연구는 밝힌다 수면 중에 수행되는 많은 필수적인 작업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 4**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학습에 필요한 경로를 형성하고 기억과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 내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 5**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여러분은 집중할 수 없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거나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
- 6** 수면 부족은 심지어 기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7**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보여주는 계속된 수면 부족이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어휘

down time 쉬는 시간

뇌가 꺼져 있다고 오해되는 상태

vital tasks 필수적인 작업

수면 중에 수행되는 건강 유지 기능

pathways necessary for learning 학습에 필요한 경로

잠자는 동안 형성되는 신경 연결

미끼

지엽어휘

수면 중 수행되는 필수 작업이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를 돕는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업무·뇌·수면이라는 주변 소재를 다른 주장으로 옮기거나 지문 밖 내용을 보탠다.

㉢ 2번의 업무 이야기만 떼어 낸다

㉢ 식단은 지문에 없다

㉣ 수면 부족의 영향을 남에게 돌린다

㉤ 4번의 memories를 꿈과 깨어 있는 경험의 연결로 바꾼다

2023년 3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7.0%

①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② We all have body rhythms characteris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lertness. ③ You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s at times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④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take a few days to observe yourself. ⑤ Try to note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⑥ We are all different. ⑦ For some, the peak wi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for others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선택지

- ①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 ②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하라.
- ③ 자기 성찰을 위한 아침 명상 시간을 확보하라.
- ④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일을 균등하게 배분하라.
- ⑤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하여 활용하라.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⑤ · 정답률 87.0% · 최다 오답 ④ 5%

- ① 3%
- ② 4%
- ③ 5%
- ④ 5%
- ⑤ 84%

직독직해

에너지 정점에 맞춘 과업 일정 배치

- ① 우리 중 누구라도 근무일 내내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 ② 우리 모두 에너지와 기민함의 정점과 저점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 ③ 가장 힘든 작업을 그것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계획을 잡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이익으로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 ④ 만약 전에 에너지 정점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며칠 동안 자신을 관찰하라.
- ⑤ 자신이 가장 좋은 상태일 때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
- ⑥ 우리는 모두 다르다.
- ⑦ 어떤 사람에게는 정점이 아침에 제일 먼저 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준비되는 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끼 역방향

하루의 에너지 정점에 어려운 일을 놓으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에너지·신체 리듬·아침이라는 주변 소재로 옮기거나 정점의 배치를 평평하게 만든다.

- ① 2번의 energy를 감정 소모로 읽는다
- ② body rhythms를 운동량으로 옮긴다
- ③ 아침이라는 예시만 가져간다
- ④ 정점에 몰아넣으라는 결론을 평평하게 만든다

2023년 6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7.0%

1 Research shows that people who work have two calendars: one for work and one for their personal lives. **2** Although it may seem sensible, having two separate calendars for work and personal life can lead to distractions. **3**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you will find yourself checking your to-do lists multiple times. **4** Instead, organize all of your tasks in one place. **5** It doesn't matter if you use digital or paper media. **6** It's okay to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asks in one place. **7** This will give you a good idea of how time is divided between work and home. **8** This will allow you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which tasks are most impor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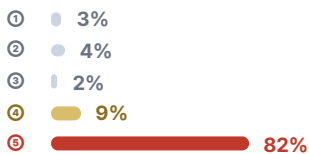
선택지

- ㉠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노력하라.
- ㉡ 자신이 담당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 ㉢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책상 위를 정돈하라.
- ㉣ 좋은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 ㉤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한 곳에 정리하라.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7.0% · 최다 오답 ㉡ 9%



직독직해

업무와 개인 일정의 단일 관리가 주는 이점

- 1** 연구는 일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업무를 위한 달력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달력이다.
- 2** 비록 그것이 현명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업무와 개인적인 삶을 위한 두 개의 별도의 달력을 갖는 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
- 3**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가 자신의 할 일 목록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4** 대신, 당신의 모든 일들을 한 곳에 정리하라.
- 5** 당신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든 종이 매체를 사용하든 중요하지 않다.
- 6** 당신의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한 곳에 두는 것은 괜찮다.
- 7** 이것은 당신에게 일과 가정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쪼개지는지에 대해 잘 알게 해줄 것이다.
- 8** 이것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미끼 지엽어휘

달력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결정·업무·정리·종이 매체 같은 주변 요소를 다른 주장으로 옮긴다.

- ㉠ 8번의 decisions만 떼어 낸다
- ㉡ 6번의 professional tasks를 업무 전문성으로 비튼다
- ㉢ organize를 물리적 정돈으로 옮긴다
- ㉣ 5번의 종이 매체만 떼어 낸다

2021년 11월 고2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84.0%

밑줄 친 a "media die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our ability to concentrate is not that we use our smartphone during working hours, but that we use it too irregularly. **2** By checking our emails every now and then on the computer and our text messages here and there on our phone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our brain loses its ability to effectively filter. **3** The solution is to regulate your devices as if you were on a strict diet. **4** When it comes to nutrition,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allows your metabolism to adjust, thereby causing less hunger during the in-between phases. **5** Your belly will start to rumble around 12:30 p.m. each day, but that's okay because that's a good time to eat lunch. **6** If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you can add a snack every now and then to get fresh energy, but your metabolism will remain under control. **7** It's the same with our brain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선택지

- ㉠ balancing the consumption of traditional and online media
- ㉡ regulating the use of media devices with a set schedule
- ㉢ avoiding false nutritional information from the media
- ㉣ stimulating your brain with various media sources
- ㉤ separating yourself from toxic media content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4.0% · 최다 오답 ㉢ 5%

- ㉠ 4%
- ㉡ 84%
- ㉢ 5%
- ㉣ 4%
- ㉤ 3%

직독직해

뇌의 필터링 능력을 무너뜨리는 불규칙한 기기 사용

- 1** 우리의 집중하는 능력에 있어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가 근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2** 특별한 일정이나 규칙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따금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간간히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잃는다.
- 3** 해결책은 마치 여러분이 엄격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 4** 영양에 관해서라면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한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적응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식사 사이의 시간 동안 허기를 덜 느끼게 한다.
- 5** 여러분의 배는 매일 오후 12시 반쯤 우르르 울리기 시작할 것이지만 그때는 점심을 먹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다.
- 6** 만약 예기치 않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활기를 얻기 위해 이따금 간식을 추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계속 통제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 7** 여러분이 그것(뇌)을 '미디어 식단' 상태로 두었을 때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이다.

어휘

filter 필터링하다
주의가 무엇에 반응할지 선별하는 기능

media diet 미디어 식단
기기 사용에 시간표를 두는 방식

metabolism 신진대사
규칙적 식사에 맞춰 조정되는 몸의 리듬

미끼 비유매개물

문제는 쓰느냐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쓰느냐인데, 오답들은 식단 비유나 내용 문제로 옮긴다.

- ㉠ 매체 종류의 균형 문제로 바꾼다
- ㉡ 식단 비유를 실제 영양 정보로 받는다
- ㉢ 자극을 늘리라고 정반대를 말한다
- ㉣ 내용의 유해성 문제로 바꾼다. 지문은 리듬이다

2022년 11월 고2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65.0%

밑줄 친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Research in the science of peak performance and motivation points to the fact that different tasks should ideally be matched to our energy level. 2 For example, analytical tasks are best accomplished when our energy is high and we are free from distractions and able to focus. 3 I generally wake up energized. 4 Over the years, I have consistently stuck to the habit of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 5 I'm someone who tends to overthink different scenarios and conversations that haven't happened yet. 6 When I procrastinate on talking with an unhappy client or dealing with an unpleasant email, I find I waste too much emotional energy during the day. 7 It's as if the task hangs over my head, and I'll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it, talking about it, and avoiding it, than it would actually take to just take care of it. 8 So for me, it'll always be the first thing I get done. 9 If you know you are not a morning person, be strategic about scheduling your difficult work later in the day.

선택지

- ㉠ thinking of breakfast as fuel for the day
- ㉡ trying to reflect on pleasant events from yesterday
- ㉢ handling the most demanding tasks while full of energy
- ㉣ spending the morning time improving my physical health
- ㉤ preparing at night to avoid decision making in the morning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5.0% · 최다 오답 ㉣ 13%

- ㉠ 7%
- ㉡ 6%
- ㉢ 67%
- ㉣ 7%
- ㉤ 13%

직독직해

각자의 에너지 수준에 맞춘 과업 일정 설계

- 1 최고의 수행과 동기 부여에 대한 과학 연구는 각각의 일이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이상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 2 예를 들어 분석적 과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높고 방해물이 없으며 집중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수행된다.
- 3 나는 보통 활기찬 상태로 일어난다.
- 4 몇 년 동안 나는 '아침에 가장 먼저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습관을 꾸준히 고수해 왔다.
- 5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 6 불만족스러워하는 고객과 이야기하거나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하는 것을 미룰 때 나는 낮 동안에 너무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 7 마치 그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것을 단지 처리하는 데 실제로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데 보낼 것이다.
- 8 그래서 나에게서는 그것이 항상 내가 끝내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 9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하루 중 더 늦은 시간에 하도록 일정을 짜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

어휘

peak performance 최고의 수행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상태
procrastinate 미루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넘김

analytical tasks 분석적 과제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일

미끼 비유매개물

에너지가 높을 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아침 식사 비유를 실물로 받거나 어제·건강·밤 준비로 논점을 옮긴다.

- ㉠ '아침으로 문제를 먹는다는' 비유를 실제 식사로 받는다
- ㉡ 필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곱씹는다. 어제가 아니다
- ㉢ 3번의 energized를 신체 건강을 돌본 결과로 바꾼다
- ㉣ 밤에 준비하기로 옮긴다

2020년 4월 고3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90.0%

1 Parkinson's Law states that "work expands to fill the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essentially meaning that our tasks will take us more time to complete if we allot more time for their completion. **2** Limiting your time on tasks may sound like it will add more stress to your day, but it will actually have the opposite effect; **3** when you impose deadlines on your tasks, you will be able to better focus on what needs to get done at any given moment, clearly defining your work schedule for the day. **4** Set a challenging time limit to your task and play with it **5** —turn completing the task into a competition against the clock so that you can have a greater sense of accomplishment as you work towards the task at hand. **6** If you complete your challenge, try reducing the amount of time you give yourself the next time you have to do something similar; **7** this internal competition will help motivate you to focus more on your tasks, making you more productive in the long run.

선택지

- ㉠ 업무 처리의 창의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극대화된다.
- ㉡ 과업 목표를 동료와 공유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 조직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 마감 시간을 정하면 과업에 더 집중하게 되어 생산성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0.0% · 최다 오답 ㉣ 4%

- ㉠ 3%
- ㉡ 2%
- ㉢ 2%
- ㉣ 4%
- ㉤ 89%

직독직해

집중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전적 시간 제한

- 1** 파킨슨의 법칙은 '일은 그 완수에 이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업의 완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면 그 과업이 우리로 하여금 완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을 의미한다.
- 2** 자신의 과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낼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3** 여러분이 과업에 마감 기한을 부과하면,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더 잘 집중하며 그날의 작업 일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여러분의 과업에 도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그것과 시합을 하라.
- 5** 즉, 여러분이 당면한 과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더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업 완수를 시계와의 경쟁으로 바꿔라.
- 6** 여러분이 자신의 도전을 완수하면 다음번에 뭔가 비슷한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시간을 줄여 보라.
- 7** 이 내면의 경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업에 더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도와주고, 결국 여러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Imposing strict time limits and deadlines on tasks creates internal motivation, enhancing focus and long-term productivity.

어휘

Parkinson's Law 파킨슨의 법칙
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도록 늘어난다는 원리

time limit 시간 제한
과제에 스스로 부과하는 마감

allot 할당하다
과업 완수에 시간을 배정함

미끼 역방향

스스로 마감을 걸면 집중이 늘어난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시간을 늘리거나 상대를 남으로 바꾼다.

- ㉠ 파킨슨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 ㉡ 목표 공유는 지문에 없다
- ㉢ 마감을 약속 지키기로 옮긴다
- ㉣ 시계와의 경쟁을 남과의 경쟁으로 바꾼다

2020년 10월 고3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58.0%

밑줄 친 **boil a pot of water on medium hea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Under-slept employees are not going to drive your business forward with productive innovation. **2** Like a group of people riding stationary exercise bikes, everyone looks like they are pedaling, but the scenery never changes. **3** The irony that employees miss is that when you are not getting enough sleep, you work less productively and thus need to work longer to accomplish a goal. **4** This means you often must work longer and later into the evening, arrive home later, go to bed later, and need to wake up earlier, creating a negative feedback loop. **5** Why try to boil a pot of water on medium heat when you could do so in half the time on high? **6** People often tell me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to sleep because they have so much work to do. **7** Without wanting to be combative in any way whatsoever, I respond by informing them that perhaps the reason they still have so much to do at the end of the day is precisely because they do not get enough sleep at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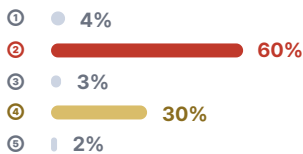
선택지

- ㉠ multitask beyond your limits
- ㉡ work inefficiently for longer hours
- ㉢ give up your passion in your career
- ㉣ keep a healthy work-and-life balance
- ㉤ compare your accomplishments with other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58.0% · 최다 오답 ㉣ 30%



직독직해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수면 부족의 악순환

- 1** 수면이 부족한 직원들은 생산적 혁신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를 나아가게 해 주지 않을 것이다.
- 2**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정된 운동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풍경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 3** 직원들이 놓치는 아이러니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덜 생산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 4** 이는 자주 더 오랫동안, 밤이 되도록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늦게 집에 도착해 더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더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센 불에서 절반의 시간에 할 수 있을 텐데, 왜 냄비 하나에 든 물을 중불에서 끓이려 하는가?
- 6**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자주 나에게 말한다.
- 7** 조금도 공격적으로 나오려는 뜻 없이, 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하루가 끝나갈 때 그들이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많은 이유는 바로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대응한다.

어휘

negative feedback loop 악순환 고리
결과가 원인을 강화해 되풀이되는 구조

under-slept 수면이 부족한
필요한 만큼 자지 못한 상태

미끼 역방향

잠이 부족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논지인데, 최다 오답은 그것을 균형으로 바꾼다.

- ㉠ 한계를 넘는 멀티태스킹은 지문에 없다
- ㉡ 열정 포기론 논점을 옮긴다
- ㉢ 악순환을 균형으로 뒤집는다. 이 편의 최다 오답이다
- ㉣ 남과의 비교는 지문에 없다

2021년 6월 고3 모평 21번

함의 · 정답률 56.0%

밑줄 친 an empty in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2**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3**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4**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5**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6**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7**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8**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9**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10**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11**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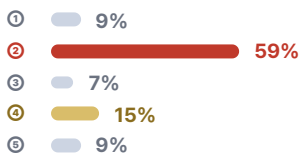
선택지

- ㉠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 ㉡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 ㉢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
- ㉣ removing social ties to maintain a mental balance
- ㉤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56.0% · 최다 오답 ㉠ 15%



직독직해

반응적 업무보다 창의적 업무를 앞세우는 원칙

- 1** 여러분이 일하는 습관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변화는 창의적 업무를 먼저 하고 반응적 업무는 그다음에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2** 이것은 전화기와 이메일을 끈 채,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창의적 업무를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따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다.
- 4** 이렇게 전환하자 나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신했다.
- 5** 하지만 내가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혹은 책의 한 챕터를 쓰려고 앉을 때마다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장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 6** 그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라고 시작하는 전화 메시지를 받을 때는 아직도 쉽지 않다.
- 7** 정익상,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을 거스른다.
- 8**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세상과 단절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 9** 그것은 불편한 느낌이 들고, 때로 사람들이 기분 상하기도 한다.
- 10** 그러나 빈 수신함을 위해(수신함을 늘 비어 있게 하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에 대해 몇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낫다.
- 11**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문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다.

미끼 역방향

밑줄 친 표현은 남의 요구를 맞추느라 무엇을 잃는가를 뜻하는데, 오답들은 처방이나 관계 문제로 바꾼다.

- ㉠ 창의적 업무를 앞세우라는 처방을 밑줄 자리에 놓는다
- ㉡ 실수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전화·이메일을 끄라는 것을 관계 단절로 읽는다
- ㉣ 반대로 관계를 늘리라고 한다

#16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7편 · 고1 3편 · 고2 2편 · 고3 2편

개념

스트레스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을 붙들고 있는 방식에서 온다.

같은 무게도 오래 들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그래서 다루는 법은 없애기가 아니라 내려놓기와 나눠 지기로 갈린다.

무엇을 얼마나 붙들지는 주의의 폭이 정하고, 혼자 질지 나눠 질지는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정한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맞는 것

지속 시간이 무게를 만든다는 것이 2022년 6월 고1이고, 주의가 좁아지면 스트레스 부분에만 고착된다는 것이 2024 학년도 수능이다.

거절하지 못해 통제권을 잃는 자리(2019년 11월 고1)와 도움을 청해 짐을 나누는 자리(2019년 6월 고2)가 나란히 놓인다.

무기력에서 나오는 방법이 같은 상태를 넘어선 사람 곁에 있는 것이고(2024년 9월 고1), 번아웃은 켜짐과 꺼짐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한다(2024년 6월 고3).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5 · 비유매개물 2

역방향 다섯이 주체와 방향을 건드린다 — 이를테면 스트레스가 상대의 요구에서 온다거나(2019년 11월 고1),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한다(2019년 6월 고2).

물잔과 자동차 완충 지대라는 비유에 걸려 물을 더 붓거나 운전 목적지를 고르는 오답도 있다(2022년 6월 고1·2020년 3월 고2).

이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단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무거워지는 조건을 다루는 단원이다.

지문 차례

1	2019년 11월 고1 학평 22번	자기주장과 통제권	86.0%	67
2	2022년 6월 고1 학평 21번	스트레스의 지속 시간 효과	83.0%	68
3	2019년 6월 고2 학평 21번	사회적 지지 요청	68.0%	69
4	2024학년도 수능 (2023년 11월 실시) 21번	주의 폭과 스트레스	61.0%	70
5	2024년 6월 고3 모평 21번	번아웃 스펙트럼	35.0%	71
6	2024년 9월 고1 학평 21번	사회적 전염과 자조 집단	81.0%	72
7	2020년 3월 고2 학평 21번	완충 지대	70.0%	73

같이 볼 것

→ #36 성과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 자기 의심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귀인이 곧 부하다.

→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내려놓기의 한 갈래가 부정에 머물지 않기도.

2019년 11월 고1 학평 22번

요지 · 정답률 86.0%

1 How many of you have a hard time saying no? **2**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no matter how much of an inconvenience it poses for you, you do what they request. **3**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because by saying yes all the time you are building up emotions of inconvenience. **4** You know what will happen in time? **5** You will resent the person who you feel you cannot say no to because you no longer have control of your life and of what makes you happy. **6** You are allowing someone else to have control over your life. **7** When you are suppressed emotionally and constantly do things against your own will, your stress will eat you up faster than you can count to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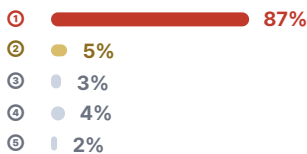
선택지

- ㉠ 거절하지 못하고 삶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 ㉡ 상대방의 거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요구에서 비롯된다.
- ㉣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6.0% · 최다 오답 ㉡ 5%



직독직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초래하는 통제권 상실

- 1**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을까 거절하는 데 어려움을?
- 2**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다.
- 3** 이것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승낙함으로써 여러분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 4** 여러분은 아스가 무엇이 결국 벌어질지?
- 5**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분개할 것이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 6**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다.
- 7**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억눌리고 끊임없이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이 셋까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이다.

미끼 역방향

거절하지 못해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주체를 상대에게 넘긴다.

- ㉡ 거절하는 쪽과 받는 쪽을 맞바꾼다
- ㉢ 주체를 상대로 뒤집는다
- ㉣ control이라는 낱말만 가져간다
- ㉤ 지문에 없는 관계 상투구

2022년 6월 고1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83.0%

밑줄 친 put the glass dow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 psychology professor raised a glass of water while teaching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to her students, and asked them,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②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③ The professor replied,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④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⑤ If I hold it for a minute, it's quite light. ⑥ But,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it wi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forcing me to drop the glass to the floor. ⑦ In each case, the weight of the glass is the same, but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⑧ As the class nodded their heads in agreement, she continued, "Your stresses in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⑨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it's a strong sign that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선택지

- ① pour more water into the glass
- ② set a plan not to make mistakes
- ③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 ④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
- ⑤ learn to accept the opinions of other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③ · 정답률 83.0% · 최다 오답 ⑤ 10%

- ① 4%
- ② 2%
- ③ 83%
- ④ 10%
- ⑤ 1%

직독직해

오래 붙들수록 무거워지는 스트레스의 속성

- ① 한 심리학 교수가 물이 든 유리잔을 들어 올렸다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던 중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물 잔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 ②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을 외쳤다.
- ③ 그 교수가 답했다, "절대적인 이 잔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④ 이는 얼마나에 달려 있죠 오래 제가 이것을 들고 있느냐.
- ⑤ 만약 제가 이것을 들고 있다면 1분 동안, 꽤 가볍죠.
- ⑥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이것은 제 팔에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제가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잔을 떨어뜨리게 바닥에.
- ⑦ 각 사례에서, 잔의 무게는 같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더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저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죠."
- ⑧ 학생들이 동의하며 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때, 교수는 계속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들은 이 물잔과 같습니다.
- ⑨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것은 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잔을 내려놓을 때라는."

어휘

absolute weight 절대적 무게
드는 시간과 무관한 물잔 자체의 무게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 관리
부담을 쌓아두지 않고 내려놓는 기술

미끼 비유매개물

물잔은 비유이고 주제는 스트레스를 오래 붙들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①은 잔을 실물로 받아들인다.

- ① 물잔 비유를 실물로 받는다
- ② 지문에 없는 계획 상투구
- ④ 원인 규명으로 바꾼다. 지문은 내려놓으라는 쪽
- ⑤ 남의 의견은 지문에 없다

2019년 6월 고2 학평 21번

주장 · 정답률 68.0%

1 If you are feeling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to deal with in your own life or your own home,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that you can balance out these responsibilities. **2** For example, is there somebody that you can turn to to tell them that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ese responsibilities? **3** If you can find somebody and divide up the labor so that you don't feel so overwhelmed by everything that you are doing,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o ask for help and your life will feel that much better. **4** Many times people will surprise you with their willingness to help you out, so never assume that other people don't care about your stress. **5** Let them know honestly how you are feeling and allow yourself some opportunities to avoid responsibility and give yourself a chance to relax.

선택지

- ㉠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라.
- ㉡ 책임지고 할 일이 많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 ㉣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 ㉤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8.0% · 최다 오답 ㉢ 14%

- ㉠ 10%
- ㉡ 69%
- ㉢ 14%
- ㉣ 4%
- ㉤ 4%

직독직해

과중한 책임을 나누기 위한 도움 요청

- 1**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이나 당신 자신의 가정에서 처리해야 할 책임의 양에 의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이러한 책임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만 할 것이다.
- 2** 예를 들어,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러한 책임들에 의해 너무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을 할 만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 3** 만약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해 너무 압도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당신이 누군가를 찾아 일을 나눌 수 있다면, 때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삶은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느껴질 것이다.
- 4**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결코 추정하지 마라.
- 5** 당신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를 허용하고, 당신 스스로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주제문 —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When feeling overwhelmed by responsibilities, you should honestly communicate your stress and ask others for help to balance your life.

미끼 역방향

짐이 무거우면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혼자 감당하는 문제로 되돌린다.

- ㉠ 나눠 지라는 결론을 정반대로 돌린다
- ㉡ 도움을 요청을 자기 관리로 바꾼다
- ㉢ 지문에 없는 시간 관리 상투구
- ㉤ 갈등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2024학년도 수능 (2023년 11월 실시) 21번

합의 · 정답률 61.0%

밑줄 친 a nonstick frying pa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how you deal with stress. **2** Scattered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it is narrowly focused,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3**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4**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5** A narrow focus heightens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but a widened focus turns down the stress level because you're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a broader perspective. **6** One anxiety-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7**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a nonstick frying pan. **8** You can still fry an egg, but the egg won't stick to the 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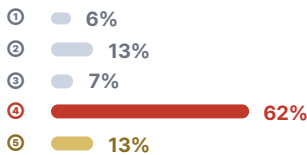
선택지

- ㉠ never being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 ㉡ broadening one's perspective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 ㉢ rarely confining one's attention to positive aspects of an experience
- ㉣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 ㉤ taking stress into account as the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61.0% · 최다 오답 ㉢ 13%



직독직해

스트레스 대처를 좌우하는 주의의 폭

- 1**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산만한 주의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해치는데, 여러분의 주위가 산만하더라도 여러분은 경험 중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에만 집착할 수 있어서 그것이 좁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 3** 여러분의 주의의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지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다.
- 4**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의 훨씬 더 많은 측면을 전체 맥락에 놓고 볼 수 있으며,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주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묶어매는 한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 5** 초점이 좁으면 각 경험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지만, 초점이 넓으면 여러분은 각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
- 6** 불안감을 유발하는 하나의 세부 사항은 더 큰 전체적인 상황보다 덜 중요하다.
- 7**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둘러볼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다.
- 8** 여러분은 여전히 달걀을 부칠 수 있지만, 그 달걀이 팬에 둘러볼지 않을 것이다.

어휘

scattered attention 산만한 주의
흩어져 있으면서도 스트레스 요소에만 고착된 상태
put into perspective 전체 맥락에 놓다
부분을 큰 그림 속에서 상대화함

attentional spotlight 주의의 스포트라이트
의식이 비추는 범위

미끼

역방향

주의의 폭이 넓어야 스트레스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스트레스 경험의 유무나 주의 대상·목적·인과를 바꾼다.

- ㉠ 스트레스 대처를 스트레스 경험 자체가 없는 상태로 바꾼다
- ㉡ 넓은 시야의 목적을 원인 규명으로 바꾼다
- ㉢ 주의를 가두는 대상을 스트레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바꾼다
- ㉤ 스트레스가 넓은 시야를 만든다며 인과를 거꾸로 놓는다

2024년 6월 고3 모평 21번

함의 · 정답률 35.0%

밑줄 친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o balance the need for breadth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and depth (some are so burned out,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②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we talk about workers who "are burned out,"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③ A black-and-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though. ④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as there is with a lightbulb, then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⑤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s this problem;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or less-severe form of it. ⑥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⑦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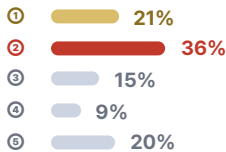
선택지

- ㉠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 ㉡ There still exists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 ㉢ All-or-nothing criteria are applicable to burnout symptoms.
- ㉣ Exhaustion is overcome in different ways based on its severity.
- ㉤ Degrees of exhaustion are shaped by individuals' perception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35.0% · 최다 오답 ㉢ 21%



직독직해

흑백이 아닌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할 번아웃

- ① 넓이(모두가 약간 번아웃되었다고 느낀다)와 깊이(일부는 너무 심하게 번아웃되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번아웃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번아웃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적 논의에서, 우리는 '번아웃된' 노동자에 대해, 마치 그 상태가 흑백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 ③ 그러나, 흑백 논리의 관점은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전구의 경우 그런 것처럼, 번아웃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면, 자신이 번아웃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용케도 자기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
- ⑤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번아웃을 호소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력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형태의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이다.
- ⑥ 그들은 번아웃된 상태가 아니면서도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 ⑦ 번아웃이 아직 최종 결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어휘

spectrum 스펙트럼
정도의 차이로 연속되어 있는 상태

breadth and depth 넓이와 깊이
많은 사람이 조금씩 겪는 면과 소수가 심하게 겪는 면

debilitated 무력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소진된

미끼 역방향

번아웃이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 넷이 정도라는 축을 저마다 비튼다.

- ㉠ 마지막 문장을 표면대로 읽는다
- ㉡ 스펙트럼을 흑백으로 되돌린다
- ㉢ 정도 차이를 극복 방법의 차이로 바꾼다
- ㉣ 정도를 개인의 인식 문제로 돌린다

2024년 9월 고1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81.0%

밑줄 친 "hanging out with the winn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One valuable technique for getting out of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ituations which are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hought, "I can't," is to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s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with which we struggle. **2**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help groups. **3**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we have given a lot of energy to negative thought forms, and the positive thought forms are weak. **4**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are free of the energy from their negative thoughts and have energized positive thought forms. **5** Merely to be in their presence is beneficial. **6** In some self-help groups, this is called "hanging out with the winners." **7** The benefit here is on the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 and there is a transfer of positive energy and relighting of one's own latent positive thought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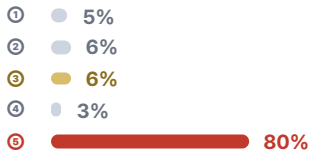
선택지

- ① staying with those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others
- ② learning from people who have succeeded in competition
- ③ keep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a higher social position
- ④ spending time with those who need social skill development
- ⑤ being with positive people who have overcome negative state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⑤ · 정답률 81.0% · 최다 오답 ③ 6%



직독직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복 전략

- 1** 무력함, 우울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해 주로 지배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유용한 기술은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 2** 이것은 큰 힘 중 하나이다 자조 집단의.
- 3**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왔고 부정적인 사고 형태에, 긍정적인 사고 형태는 약하다.
- 4** 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 있고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에너지에서 긍정적인 사고 형태를 활기 띠게 했다.
- 5** 단지 그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유익하다.
- 6** 일부 자조 집단에서 이것은 '승자들과 어울리기'라고 불린다.
- 7** 여기에서의 이점은 의식의 정신적 수준에 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과 자신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사고 형태의 재점화가 있다.

미끼 역방향

같은 상태를 넘어선 사람 곁에 있으라는 것이 논지인데, 일부 오답은 그 사람을 경쟁의 승자나 사회적 윗사람으로 바꾼다.

- ① 희생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② 극복한 사람을 경쟁에서 이긴 사람으로 바꾼다
- ③ 4번의 higher vibration을 사회적 지위로 읽는다
- ④ 방향을 내가 돕는 쪽으로 뒤집는다

2020년 3월 고2 학평 21번

함의 · 정답률 70.0%

밑줄 친 **creating a buff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On one occasion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buffers to my children. **2**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and I tried to explain the idea using a game. **3** Imagine, I said, that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three miles away without stopping. **4** We couldn't predict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5**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or if the car in front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s. **6**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was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7** This space acts as a buffer. **8** It gives us time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9** Similarly, we can reduce the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s simply by creating a buffer.

선택지

- ㉠ knowing that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 ㉡ always being prepared for unexpected events
- ㉢ never stopping what we have already started
- ㉣ having a definite destination when we drive
- ㉤ keeping peace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지

정답 ㉡ · 정답률 70.0%

- ㉠
- ㉡
- ㉢
- ㉣
- ㉤

직독직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완충 지대

- 1** 나는 한번은 아이들에게 완충 지대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다.
- 2** 우리는 그때 차에 함께 있었고 나는 게임을 이용하여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했다.
- 3** 나는 멈추지 않고 3마일 떨어진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했다고 상상해 보자고 말했다.
- 4** 우리는 우리 앞과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 5** 우리는 신호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녹색으로 켜 있을지, 아니면 앞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몰랐을 것이다.
- 6** 충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었을 것이다.
- 7** 이 공간은 완충 지대로 작용한다.
- 8**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차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을 준다.
- 9**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지 완충 지대를 만듦으로써 우리의 일과 삶에서 필수적인 일을 할 때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어휘

buffer 완충 지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할 여유 공간

friction 마찰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

미끼 비유매개물

차간 거리는 비유이고 주제는 여유를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것인데, 오답들은 그 일화의 재료를 가져간다.

- ㉠ 아이들과 한 게임에서 왔다. 승패는 논점이 아니다
- ㉡ 3번의 without stopping을 결심의 문제로 읽는다
- ㉢ 차 안 일화의 목적지를 주제로 삼는다
- ㉣ 관계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17 자기 한계를 어디에 긋는가

6편 · 고1 2편 · 고2 2편 · 고3 2편

개념

성장을 막는 경계는 능력에 대한 잘못된 평가뿐 아니라 불편 회피와 즉각적 성과에 대한 기대에서도 생긴다. 오차는 양쪽으로 나서, 자신을 크게 보는 쪽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게 보는 쪽도 똑같이 해롭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다 —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재고 나서 전략을 세운다.

이 단원의 지문이 나눠 말하는 것

낮은 목표를 이루고도 실망한 경우가 높은 목표를 놓친 경우보다 많다(2020년 9월 고1). 두 방향 오차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2024년 6월 고2이고, 진찰 없는 처방에 빗대 순서를 말한 것이 2021년 10월 고3이다. 선을 넓히는 방법은 자신 있는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는 상태를 견디는 것이다(2023년 9월 고3).

가려지는 방식

역방향 6

여섯 편 전부가 역방향이다 — 상황에 맞춰 목표를 수정하라(2020년 9월 고1), 익숙한 것부터 도전하라(2021년 6월 고1),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2024년 3월 고2). 오답이 하나같이 온건하게 들린다는 것이 이 단원의 특징이다.

이것은 아니다

높은 목표와 불편한 도전을 권하되, 자기 상황을 진단하지 않은 무모한 전략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 차례

1	2020년 9월 고1 학평 20번	목표 수준과 자기 과소평가	78.0%	75
2	2021년 6월 고1 학평 20번	안전지대 이탈	91.0%	76
3	2024년 3월 고2 학평 20번	인내와 성취	87.0%	77
4	2024년 6월 고2 학평 20번	자기 인식의 양방향 오차	79.0%	78
5	2023년 9월 고3 모평 20번	자신감의 확장 조건	96.0%	79
6	2021년 10월 고3 학평 20번	진단이 선행하는 전략	93.0%	80

같이 볼 것

- #25 안전을 택할 때 잃는 것 같은 선을 바깥에서 본 것. 안전을 고르는 순간 무엇이 닫히는가.
- #29 피드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스로 재는 눈에는 한계가 있다. 밖에서 오는 눈이 그 자리를 메운다.
- #39 부정에 머물지 않기 자기 평가가 부정으로 기울 때, 부정 편향과 인지적 재구성의 문제가 이어진다.

2020년 9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78.0%

1 Any goal you set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and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at some points along the way. **2** So why not set your goals much higher than you consider worthy from the beginning? **3** If they are going to require work, effort, and energy, then why not exert 10 times as much of each? **4** What if you are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ies? **5** You might be protesting, saying, "What of the disappointment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istic goals?" **6** However, take just a few moments to look back over your life. **7** Chances are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and achieving them — only to be shocked that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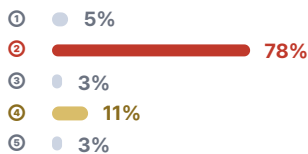
선택지

- ㉠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 목표는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 ㉢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 ㉣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8.0% · 최다 오답 ㉣ 11%



직독직해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설정할 목표

- 1** 여러분이 세우는 어떤 목표든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 2**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떤가?
- 3** 만약 그것들이 될 것이라면 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게, 그렇다면 각각을 10배 더 많이 발휘하는 것은 어떤가?
- 4**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5** 여러분은 항의할지도 모른다, 말하며, "실망은 어찌할 것인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 6** 그러나 그저 잠깐의 시간을 가져봐라 되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 7** 아마 여러분은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더 자주 실망해 왔을 것이다 —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을 여전히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이다.

미끼 역방향

목표를 생각보다 높게 잡으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이를 최선의 태도·상황별 목표 수정·과거 실패 회고·구체적 계획의 문제로 바꾼다.

- ㉠ 3번의 노력만 떼어 태도 상투구로 바꾼다
- ㉡ 2번의 from the beginning을 상황에 따른 목표 조정으로 바꾼다
- ㉢ 6번의 look back을 실패 반성으로 읽는다
- ㉤ 3번의 work, effort, energy를 구체적 계획으로 바꾼다

2021년 6월 고1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91.0%

1 Sometimes, you feel the need to avoid something that will lead to success out of discomfort. **2** Maybe you are avoiding extra work because you are tired. **3** You are actively shutting out success because you want to avoid being uncomfortable. **4** Therefore, overcoming your instinct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is essential. **5** Try doing new things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6** Change is always uncomfortable, but it is key to doing things differently in order to find that magical formula for success.

선택지

- ① 불편할지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 ②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갈등 해소를 위해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 ④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익숙한 것부터 도전해야 한다.
- 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① · 정답률 91.0% · 최다 오답 ③ 3%

- ①  91%
- ②  2%
- ③  3%
- ④  2%
- ⑤  1%

직독직해

성공을 차단하는 불편 회피 본능의 극복

- 1** 가끔씩은, 당신은 불편함 때문에 성공으로 이끌어 줄 무언가를 피할 필요성을 느낀다.
- 2** 아마도 당신은 추가적인 일을 피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 3** 당신은 적극적으로 성공을 차단하고 있다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 4** 따라서,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을 피하려는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5**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라 당신의 안전지대(편안한 지대) 밖에서.
- 6** 변화는 항상 불편하지만 그것은 핵심이다 일을 다르게 하는 데 있어 성공을 위한 그 마법의 공식을 찾기 위하여.

미끼 역방향

불편을 감수해야 성공이 열린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불편을 없애거나 피하라는 말과 지문에 없는 균형·직관을 내세운다.

- ② 지문에 없는 균형 상투구
- ③ 불편을 없앨 대상으로 바꾼다
- ④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라는 결론을 뒤집는다
- ⑤ 직관은 지문에 없다

2024년 3월 고2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87.0%

① Too many times people, especially in today's generation, expect things to just happen overnight. ② When we have these false expectations, it tends to discourage us from continuing to move forward. ③ Because this is a high tech society, everything we want has to be within the parameters of our comfort and convenience. ④ If it doesn't happen fast enough, we're tempted to lose interest. ⑤ So many people don't want to take the time it requires to be successful. ⑥ Success is not a matter of mere desire; you should develop patience in order to achieve it. ⑦ Have you fallen prey to impatience? ⑧ Great things take time to b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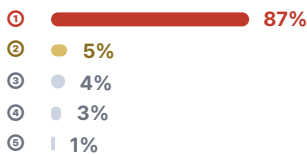
선택지

- ㉠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한계에 도전해야 한다.
 ㉢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87.0% · 최다 오답 ㉡ 5%



직독직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길러야 할 인내심

- 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 특히 오늘날의 세대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②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③ 지금은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제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④ 그 일이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흥미를 잃게끔 유혹을 받는다.
 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⑥ 성공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것(성공)을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⑦ 여러분은 조바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가?
 ⑧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미끼 역방향

성공은 욕구가 아니라 시간을 건디는 문제라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이를 안락함·속도·능동성·흥미의 문제로 바꾼다.

㉡ 3번의 comfort만 떼어 도전 이야기로 바꾼다

㉢ 인내를 속도로 뒤집는다

㉣ 기다림을 수동으로 읽는다. 지문은 시간을 건디라는 쪽

㉤ 4번의 lose interest만 떼어 낸다

2024년 6월 고2 학평 20번

주장 · 정답률 79.0%

1 Most people resist the idea of a true self-estimate, probably because they fear it might mean downgrading some of their beliefs about who they are and what they're capable of. **2** As Goethe's maxim goes, it is a great failing "to see yourself as more than you are." **3** How could you really be considered self-aware if you refuse to consider your weaknesses? **4** Don't fear self-assessment because you're worried you might have to admit some things about yourself. **5** The second half of Goethe's maxim is important too. **6** He states that it is equally damaging to "value yourself at less than your true worth." **7** We underestimate our capabilities just as much and just as dangerously as we overestimate other abilities. **8** Cultivate the ability to judge yourself accurately and honestly. **9** Look inward to discern what you're capable of and what it will take to unlock that potential.

선택지

- ㉠ 주관적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
- ㉣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79.0% · 최다 오답 ㉢ 12%

- ㉠ 2%
- ㉡ 80%
- ㉢ 12%
- ㉣ 4%
- ㉤ 2%

직독직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모두 피하는 정확한 자기 판단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평가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중 일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 2** Goethe의 격언처럼, "너 자신을 실제 모습 이상으로 보는 것"은 큰 실수이다.
- 3** 네가 너의 단점을 생각해 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 4** 네가 너 자신에 대해 몇 가지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 5** Goethe의 격언 후반부도 중요하다.
- 6** 그는 "너의 진정한 가치보다 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똑같이 해롭다고 말한다.
- 7** 우리는 다른 능력들을 과대평가하는 것만큼 많이 그리고 위험하게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 8** 너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라.
- 9**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너의 잠재력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봐라.

어휘

self-estimate 자기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self-aware 자기 인식이 있는
자신의 약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태

미끼 역방향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라는 것이 논지인데, 최다 오답은 9번의 잠재력만 떼어 도전 이야기로 바꾼다.

- ㉠ 평가 대상을 나에서 타인으로 뒤집는다
- ㉡ 9번의 potential만 떼어 자기 평가를 행동론으로 바꾼다
- ㉢ 남과의 비교 이야기는 지문에 없다
- ㉣ 자기 평가를 문제 분석으로 옮긴다

2023년 9월 고3 모평 20번

주장 · 정답률 96.0%

1 Confident is not the same as comfortable. **2**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is that it means living fearlessly. **3**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is quite the opposite. **4** It means we are willing to let fear be present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5**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it feels good. **6** We want to stay there and hold on to it. **7** But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then confidence never expands beyond that. **8** If we only do the things we know we can do well, fear of the new and unknown tends to grow. **9** Building confidence inevitably demands that we make friends with vulnerability because it is the only way to be without confidence for a while. **10** But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is when we are willing to be without it. **11** When we can step into fear and sit with the unknown, it is the courage of doing so that builds confidence from the ground up.

선택지

- ㉠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 있는 일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 ㉡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 ㉢ 어려운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

여기까지 먼저

정답과 선택률

정답 ㉡ · 정답률 96.0% · 최다 오답 ㉣ 2%

- ㉠ | 1%
- ㉡ | 96%
- ㉢ | 1%
- ㉣ | 2%
- ㉤ | 1%

직독직해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확장되는 자신감

- 1**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맘이 편하다는 것과 같지 않다.
- 2**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3** 자신감 구축의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 4**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존재하도록 기꺼이 두는 것을 의미한다.
- 5** 무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기분이 좋다.
- 6** 우리는 거기에 머물며 그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 7** 하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곳으로만 간다면, 그런 경우 자신감은 그 이상으로 절대 확장되지 않는다.
- 8**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만 한다면, 새롭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9** 자신감을 키우려면 필연적으로 취약성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한동안 자신감 없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10** 하지만 자신감이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꺼이 자신감 없이 지낼 때이다.
- 11**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미지의 것을 견딜 수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자신감을 쌓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용기이다.

어휘

self-confident 자신감 있는

vulnerability 취약성

expand 확장되다

미끼

역방향

자신 없는 상태를 견뎌야 자신감이 자란다는 것이 논지인데, 오답들은 이를 적성·사전 계획·약점 분석·기존 경험의 문제로 바꾼다.

- ㉠ 자신 있는 곳에만 머물지 말라는 결론을 뒤집는다
- ㉡ 자신 없는 상태를 견디라는 논지를 지운다
- ㉢ 취약성을 약점 분석으로 읽는다
- ㉣ 이미 잘하는 것에 머물라는 쪽이다